

2005 곡성문화원 복권기금지원사업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

주최 곡성문화원

후원 국무총리복권위원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전국문화원연합회

목 차

- 06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정주영(곡성 중앙초등학교 4-5)
- 08 나눔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하자!
조영미(곡성 중앙초등학교 4-5 정주영어머니)
- 09 지리산 자연 탐사를 하고 나서
조성호(곡성 삼기초등학교 6학년)
- 10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배수민(곡성 석곡초등학교 5학년)
- 13 지리산의 생명과 문화를 찾아 떠난 가을산행
강상희(곡성 석곡초등학교 5학년 배수민어머니)
- 16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최이슬(곡성 입면초등학교 5학년)
- 17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이하늘(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 19 제1기 지리산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이창환(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이하늘아버지)
- 21 2박 3일의 지리산 탐사를 마치고 ...
강창원(곡성 중앙초등학교 6학년)
- 23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성재(곡성 중앙초등학교 6학년 강창원어머니)
- 24 지리산 문화 탐사를 다녀와서
김예진(곡성 고달초등학교 4학년)
- 26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빙수현(곡성 중앙초등학교 5학년)
- 27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박영순(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빙수현어머니)
- 29 제1기 지리산 탐사를 다녀와서...
박순범(곡성 삼기초등학교 6학년)
- 30 지리산 통합문화권역 탐사를 동행하면서
박종달(곡성 삼기초등학교 6학년 1반 박순범아버지)
- 31 지리산 생태 문화 대탐사
신지원(곡성 석곡초등학교 5학년)
- 32 제1기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 체험 기행문
박성숙(곡성 문화원 4모듬장)
- 35 제1기 지리산 생태문화 체험 기행문
하지연(곡성 중앙초등학교 5-2)
- 37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이도영(곡성 중앙초등학교 6학년)
- 38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금숙(곡성 중앙초등학교 6학년 이도영어머니)
- 39 사랑스런 지훈에게
김명숙(곡성 석곡초등학교 6학년 정지훈어머니)
- 40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조재진(곡성 죽곡초등학교 4학년 1반)
- 41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이현림(곡성 죽곡초등학교 4학년 1반 조재진어머니)
- 42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규식(곡성 입면초등학교 6학년)
- 44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조경민(곡성 중앙초등학교 5학년)
- 46 지리산 통합문화권역 탐사를 하고나서....
임성인(곡성 고달초등학교 6학년)
- 47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정대성(곡성 입면초등학교 6학년)
- 48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상희(곡성 입면초등학교 6학년 정대성어머니)
- 49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마치고
문지연(곡성문화원 6모듬장)
- 50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여현우(곡성 중앙초등학교 5학년 4반)
- 52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서귀숙(곡성 중앙초등학교 5학년 4반 여현우어머니)
- 53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기예원(6조 곡성 중앙초등학교 6학년 1반)
- 53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연옥(6조 곡성중앙초등학교 6학년 1반 기예원 어머니)
- 54 제 1기 지리산 생태 문화 대탐사
김주영(곡성 죽곡초등학교 6학년)
- 54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미재(곡성죽곡초등학교 6학년 김주영어머니)
- 55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이대근(곡성 입면초등학교 6학년)
- 56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영숙(곡성 입면초등학교 6학년 이대근어머니)
- 58 지리산생태문화대탐사
이정희(곡성문화원)
- 61 지리산 생태문화체험을 다녀와서
주수빈(곡성 중앙초등학교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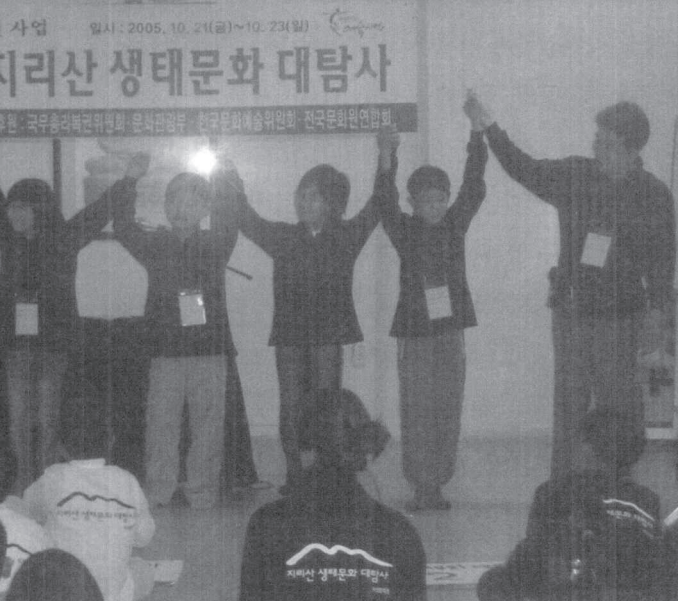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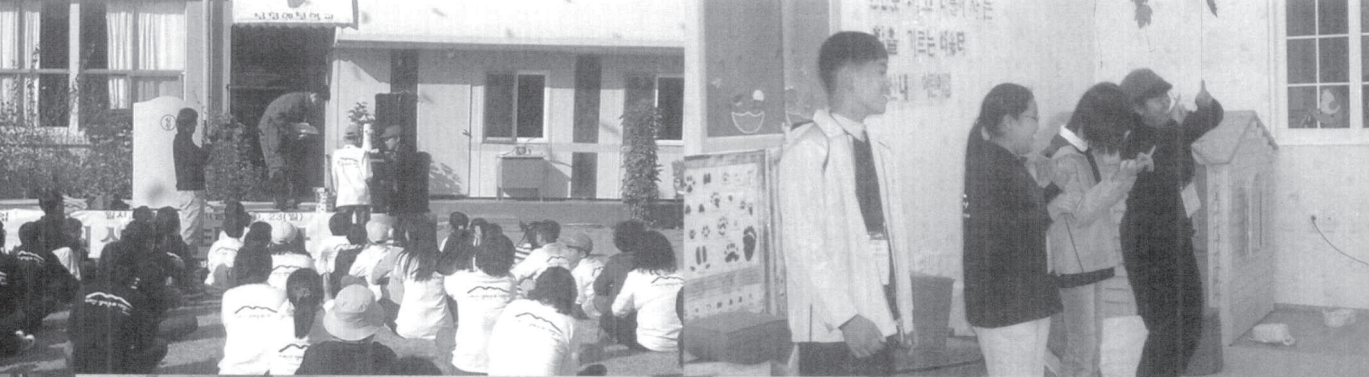


사업 일시 : 2005. 10. 21(금)~10.

리산 생태문화

국무총리복권위원회 관공방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정 주 영(곡성 중앙초등학교 4-5)

아침에 지리산 생태 문화 대 탐사에 참석하기 위해 지리산에 갈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1시간 20분을 달려 평지에 건축된 실상사에 도착했습니다. 내 존재의 실상을 깨달아 라는 뜻이 담긴 실상사는 원래 지실사 라는 이름이었는데 홍척 스님의 호를 따서 바뀌었다고 합니다. 경내가 다른 사찰에 비해 굉장히 넓었고 11개나 되는 여러 가지 보물과 1개의 국보를 보았는데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실상사 쌍둥이 3층 석탑이었습니다. 작년에 불국사에 가서 본 석가탑, 다보탑과 비교를 하니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또한 약사전에 있는 철불여래좌상은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기가 일본으로 나가려는 것을 막기 위해 왼쪽 두 번째 손가락으로 누르는 형상을 조각했는데 그 불상이 천왕봉과 마주 하고 있어서 더욱 웅장했습니다. 부처님의 나라사랑 정신을 본받아야 겠습니다. 그런데 발우공양 시간에 특별한 점심식사를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도 하면 안되고 음식물도 남기면 안되기 때문에 고춧가루가 섞인 미역국에 내 손을 씻은 물까지 다 마셨습니다. 먹고 나서는 토할 것 같고 어지러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음식에 ! 대한 소중함을 깨달은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그동안에는 먹고 버리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는데 이곳에서 식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고 학교 급식에서는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후에는 무 농약 농작물 체험에서 고구마도 캐서 맛보았습니다. 곡성 지역에도 채소는 많이 있는데 이곳 채소는 농약을 하지 않아서 인지 배추에 구멍도 나있고 모양도 좋지 않았지만 우리 몸에 좋고 환경도 살릴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또한 대변, 소변이 거름으로 쓰인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여기서 직접 체험해보니 환경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 자연을 스스로 지켜야 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릇을 씻는 수세미도 사찰지붕에 열린 수세미를 이용한 것이 신기했습니다. 오늘하루 신나고 보람찬 하루였습니다. 조금 있으면 처음으로 절에서 엄마와 또 친구들과 함께 잠을 잘 것입니다. 너무너무 즐겁고 기대가 됩니다. 내일도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 다음 날 실상사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청학동에 왔습니다. 땅 모양이 학을 닮은 청학동은 구름 한 점 없이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가 우리를 반겨! 주었습니다. 청학동에 와서 우리는 훈사님께 말씀을 듣고 예절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자가 하는 큰절이 '배속'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후에는 활쏘기, 투호 놀이, 긴 줄넘기 등 여러 가지 체험활동을 했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인절미 만들기였습니다. 작년에 낙안읍성에서 인절미를 먹었는데 그때는 만들어졌던 것이라 잘 몰랐지만 이번에는 엄마와 함께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만들어서 어떻게 만들었는지 또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방앗간에서 기계로 만들어진 떡은 먹기에는 편리하겠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 협동하면서 떡을 치고 만들어 먹었구나 라고 생각하니 옛날이 그



립기도 했습니다. 저녁밥을 먹고 청학동에서 평소에 한자를 배웠던 것처럼 우리도 사자소학을 배웠습니다. 모르는 한자가 많이 있었지만 음의 높.낮이를 조절해서 노래처럼 부르면서 배웠더니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방학 때 와서 더 많은 공부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훈장님께서 하신 말씀 중 제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싶은 말씀은 나를 사랑하자. 그리고 남을 사랑하자. 라는 말이었습니다. 앞으로 실천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청학동에서 하루를 보내고 셋째 날은 곡성에 있는 !심청 예절 학교에서 다도와 천연염색을 체험했습니다. 소목을 이용한 염색은 정말 예쁜 스카프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나 주위의 어른들께 선물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기쁩니다. 차를 마시는 데도 여러 가지 예절을 갖추어서 마시면 마음도 안정되고 차 맛을 제대로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다도를 배운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다른 학교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을 사귄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서 체험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을 수 있어서 훨씬 보람되고 소중했습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 많이 준비하고 열심히 배우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의 소중함을 알고 실천하자!

조 영 미(곡성 중앙초등학교 4-5 정주영어머니)

백문이 불여 일견이요 백견이 불여 일행이라는 말이 있다. 백 번 듣는 것 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고 백 번 보는 것 보다 한번 행하는 것이 낫다는 뜻이다. 지난 10월 21일부터 2박 3일 동안곡성군 관내의 초등학교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지리산 생태문화 대 탐사"의 체험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첫날, 곡성을 출발하여 전라북도에 소재한 실상사에 도착 후 대안학교의 프로그램과 무 농약 유기농법으로 길러진 먹거리들을 소개받고 발우 공양(스님들의 식사하는 법)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먹거리의 소중함과 환경을 살려서 후손에게 보존하는 일이 새삼 중요함을 깨달았다. 이튿날 청학동에서 본 가을하늘은 사진처럼 아름다웠다. 이제껏 구름 한 점 없이 그리도 푸른 하늘을 언제 보았나! 싶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훈장님의 자녀 교육에 대한 강의와, 훈사님들의 사자소학 수업, 예절교육, 여러 가지 민속놀이 체험, 인절미 만들어 먹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이들이나, 학부모나 색다른 경험이 귀하고 소중한 하루였음을 알게 해 주었다. 마지막 날은 곡성 심청 예절 학교에서 다도와 천연염색 체험을 했는데 이 또한! 보람되고 값진 시간들이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상을 벗어나 아이들과 함께 자연을 감상하고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즐거웠다. 또한 다른 학교의 친구나 오빠, 동생들을 사귄 수 있어서 아이들에게 는 또 하나의 좋은 추억거리를 만들어 준 것 같아서 감사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아이들이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끼니마다 음식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깨끗하게 비운 모습이 대견스럽기까지 했다. 저녁시간 마다 아이들이 그 날보고 듣고 배운 내용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다들 열심히 준비 하고나름 대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랑스럽고 뿌듯했다. 대중 앞에 나가서 발표를 하기 위해 아이들은 시간시간 더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기 위해 열심히 적은 것을 보면서 아이들의 눈높이와 사고력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청학동 훈장님의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자" 라는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봉사와 희생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다. 나눔은 내가 많은 것을 가져 서가 아니고 나눌 수 있다는 자신과의 약속이다. 뻗어는 ,만큼 내게 보인 만큼만이라도 나눔을 실천한다면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살만한 세상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뜻 깊은 행사를 주최하고 일정에 차질이 없게 하려고 동분서주하면서 애쓰신 곡성문화원 식구들과 도우미 해설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리산 자연 탐사를 하고 나서

조 성 호(곡성 삼기초등학교 6학년)

나는 아침 6시 30분에 일어나 지리산 자연 탐사를 가기 위해 준비를 했다. 그리고 7시 20분에 같이 가기로 한 순범이네 가족과 같이 곡성 국민회간으로 갔다. 하지만 너무 빨리 가서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 8시가 되자 문화원에서 사람들이 와서 설명을 하고 나서 9시에 출발을 했다. 먼저 실상사를 가고 나니 다른 절들과는 달리 실상사는 평지에 있었다. 그리고 나서 안으로 들어가 보니 보물들이 여러 개가 있었다. 그 중에서 제일 인상깊었던 것은 1100이나 된 기왓장이 탐처럼 쌓여 있던 것이다.

실상사를 둘러 보고 점심을 먹었다. 그런데 나는 1조라서 점심은 발우 공양을 했다. 나는 마지막에 미역국과 씻은 물을 먹는게 제일 힘들었다. 점심을 먹고 작은 학교를 갔는데 "땅도 땅도 내땅이다" 노래를 하면서 재미있는 놀이를 했다. 그리고 나서 고구마를 쪄는데 내가 큰 고구마로 8개나 쪄다.

나는 너무 기뻐다. 다른 애들을 잘 만나오는 데 나만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 고구마를 다 캐고 나서 실상사에서 하루를 지냈다. 실상사에서 자고 일어나 스님들과 함께 마당을 쓸고 다녔다. 조금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실상사에서 출발하여 청학동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청학동으로 가기위해서 2시간 20분을 갔다. 청학동은 산에있어서 공기도 맑고 하늘도 맑았다. 청학동에서는 전통놀이와 인절미 만들기 사자성어 등을 했다. 내가 제일 재미있게 한 것은 전통놀이이다. 전통 놀이는 활쏘기 투호놀이 제기차기가 있었다. 제기는 잘 차지 못했지만 활쏘기나 투호놀이는 잘 했다. 청학동에서는 밥도 맛있게 해 주었다. 저녁을 먹고 나서 자기 전에 3조의 조장님이 별자리를 설명해 주셨다. 곡성에서는 볼수 없었던 별자리 들이 많이 떠 있었다.

이번 지리산 자연 탐사는 정말 보람있는 여행이었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배 수 민(곡성 석곡초등학교 5학년)

이번에 간 문화기행은 두 번째 여행이다. 저번에는 하루 동안 이었는데, 그때는 동생과 엄마와 함께였다.

이번엔 2박3일이어서 더 특별하고 내 투정으로 떨어진 엄마와의 관계도 이어주는 것 같았다. 아침부터 쌀쌀한 공기가 나를 감쌌다. 곡성에 가자마자 두꺼운 외투를 입고 가라 하시던 아빠의 말씀이 떠올랐다. 시작하는 처음부터 후회하면서 갔다. 처음 갈 때에는 "지리산으로 출발~!" 하면서 힘차게 시작했다. 버스가 가는 동안 비가 내렸다. 그래서 더 기온이 내려갔는데 우리가 실상사에 도착하고 얼마 후에 비가 그쳐서 다행이었다.

10월 21일, 첫째 날

실상사를 처음 들어갈 때는 천왕문이 우리의 시선을 압도하고 있었다. 천왕들의 모습이 웃기기도 했지만 우리의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혔다. 실상사는 유기농 채소를 기르고 있다. 비료는 모두 사람의 용변으로 만든다고 하던데 더럽다고만 생각하던 것이 이렇게 유익하게 이용되니까 신기하고 좋았다. 발우공양은 힘들었는데 순서도 있고 불편한 자세로 앉아 먹어서 불편하기 짝이 없었다. 발우공양을 마치고 성호오빠는 인터뷰를 했는데 성호오빠가 갑자기 수줍음을 타니까 당황스러웠다. 조별로 줄을 서서 작은 학교로 출발했다. 나는 내 물건을 가져오느라 조금 늦었는데 5조 선생님이 "1조는 전멸 하겠다." 라고 하셔서 자존심이 강한 나로서는 정말 그 말이 기분 나빴다. 작은 학교의 청개구리 선생님은 청개구리라는 이름이 붙여진 까닭이 궁금해서 여쭙봤는데 말을 안 들어서 청개구리라고 하셨다. 내가 보기엔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지는 않고 눈빛이 장난기가 뭉쳐있었다. 고구마를 캐러 갔을 때는 조그마한 고구마를 우리 조 선생님께서 호미로 깎아 주셔서 모두 나눠먹었는데 오순도순 모여 작은 것이라도 나누어 먹는 우리 조가 참 보기 좋았다.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 시간은 달리기 경주를 하는 듯 벌써 저녁 먹을 때가 되었다. 저녁 때에는 발우공양을 안 해서 찌꺼기는 먹지 않아도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그 곳에서도 남기면 안 되고, 큰 그릇에 물을 부어서 모두 씻어 마셔야 했다. 밥을 먹고 발표 준비를 하던 나와 이슬이는 헉,, 어떡하지? 시간 다 됐어... 빨리 해야되는데,,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다. 발표를 했을 때 주영이는 나보다 훨씬 잘한 것 같았다. 길고도 지루한 발표시간이 지나자 우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튕겨나가 한껏 자유를 누렸다. 이제 잠을 잘 시간에는 이불과 베개가 부족했는데 우리는 베개는 얻지 못했지만 이불은 덮을

것과 밑에 깔 것을 모두 받았다. 그리고 더 폭신하게 하려고 밑에는 방석을 깔았다. 절에서 자니까 어수선했는데 바닥의 온기가 우리의 피로를 풀어줬다. 새벽 4시에는 스님들이 예불을 드려서 소리가 아주 시끄러웠다. 그래서 일어났다가 다시 잠을 잤는데 시끄러워서 짜증이 나려고 했다. 반면에 엄마는 목탁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서 좋다고 하셨다.

10월 22일, 둘째 날

해뜰 녘에 일어나서 절 마당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쓸었다. 평소 집에서도 하지 않은 일이라서 힘들었지만 아침 운동이라 생각하고 쓸었다. 운동을 해서 제일 먼저 생각 난 것은 밥이었다. 남기지 않고 일명 승냥도 먹어야 했는데 배가 고파서 그런지 신경 쓰이지 않고 바로바로 넘어갔다. 밥을 먹고 해 뜰 때 하늘을 봤는데 정말 한 폭의 그림이었다.

청학동에 갈 때는 멀미가 날 것이라고 해서 조금 긴장했는데 멀미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휴게소에서 청학동에서 먹지 못할 군것질을 실컷 했다. 청학동은 내가 드라마에서 봤던 서당과는 달리 넓고 깨끗했다. 그런데 풍월을 읊는 개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 그 곳에선 예절과 효, 그리고 인성을 배웠는데 인성을 가르쳐주신 훈장님은 왠지 친밀감이 느껴졌다. 그 시간에는 들어보지 못한 사자 성어를 들었다. 바로 여인위선(與人爲善)이다. 뜻은 사람의 착한 것을 허락한다, 즉 남의 잘한 것을 칭찬하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교육자, 목사 등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된다 라는 뜻이다. 이 사자 성어는 내 생각으로는 남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뜻인 것 같다. 청학동은 재미없게 한자만 배우는 줄만 알았는데 훈장님이나 훈사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와 입담으로 말씀 해주시니 배우는 것이 더욱 재미있는 것 같았다. 청학동에서는 예절교육을 마친 후 엄마, 아빠께 어머니, 아버지라고 불러야 하니까 왠지 쑥스러웠다. 예절 교육 시간엔 남녀 절하는 법을 배웠는데 명절 때 마다 제대로 하지 못한 절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다. 절을 하고 나서 훈사님이 해주시는 재미있는 옛 이야기도 들었는데 효와 예절에 대해 더 이해가 잘 되었다. 예절 교육이 끝나고 저녁밥을 먹고 엄마께서 대나무 잎으로 배 만들기를 가르쳐 주셨다. 처음이라서 서툴렀지만 예쁘게 되서 기분이 좋았다. 씻고 나서는 별도 보러 갔는데 밝은 별들을 보다가 달이 뜨는 것을 보았는데 조금씩 조금씩 애태우는 우리를 놀리는 듯이 늦게 나오다가 꼭 대포 쏘는 것처럼 뿡~!튀어나왔다. 막 나온 달을 보니까 내 기분이 좋아졌다. 엄마와 달을 보며 소원을 빈 뒤 내려와서 샤워를 했다. 따뜻한 물이 나와서 좋긴 했는데 수압이 낮아서 빨리 하지 못했다. 마지막 밤이라서 아쉬웠는지 엄마들과 애들은 모여 앉아 각자 이야기를 했는데 주영이 엄마가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자꾸 웃음이 나왔다. 각자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엄마들은 우리들의 교육문제 같은 점을 이야기 하셔서 우리 애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웃고 그러니까 꼭 야영 온 것 같았다. 그 만큼 적응을 했다는 소리인가? 청학동에서 샤워를 해 본 사람은 우리 학교에서 내가 처음일 것이다.

10월 23일

지금 생각하면 48시간이란 긴 시간이 하루처럼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까웠다. 마지막 날인데 송별회라도 하고 싶은 맘이었다. 2일 동안 무리한 활동을 해서 그런지 차에 타자마자 피곤함이 몰려왔다. 그래도 바깥 경치를 보니 잠이 오지 않았다. 우리 동생은 때 쓰는 목소리로 전화를 했다. 우는 소리를 하긴 했지만 3일 동안이나 엄마와 떨어져 있는 동생이 그저 신기하기만 했다. 이것저것 생각하는 사이 벌써 버스는 천연염색 하는 곡성 심청학교에 다 와있었다. 내렸을 때는 황토염색한 옷과 천연염색을 한 옷을 입고 계신 두 분 선생님의 예쁜색 옷을 보고 빨리 염색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사람들이 너무 배고파서 점심을 먼저 먹고, 휴식시간을 가졌다. 휴식시간에는 널뛰기와 굴렁쇠를 했는데 널뛰기는 하지연이가 잘 했다. 그리고 형인이는 하늘이와 호흡이 잘 맞았다. 다도 시간에는 예쁜 여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셨다. 선생님을 보자 들떠있던 내 마음이 삭! 가라앉았다. 다도는 우리 조상들이 자주 하시던 정신 수양이었다. 나는 그냥 차 마시는 것으로만 착각했다. 하지만 정신수양이라고 하시길래 정신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천연염색 시간이 되었다. 재료는 소목이였고, 소목을 삶은 물에 실크를 넣다. 그 다음엔 물에 조금 행구고 매염제로 어른들은 동, 우리들은 철로 했는데 철은 와인색, 동은 보랏빛 스카프가 되었다.

어른들을 비집고 들어가 우리 것을 섞고 손질하는 것을 이슬이랑 같이 해 보았다. 다른 애들은 못하는 것을 해봐서 좋다. 다 마르고 시상식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갔다. 3일 동안 가족과 떨어져 엄마와만 오니까 조금 더 특별한 것 같았다. 나와 엄마만의 특별한 여행기,, 이번 경험은 평생 못 잊을 것 이다. 실상사, 청학동 등에서 특별하고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며 지리산 탐사에 온 사람들과 정을 더 많이 쌓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앞으로도 문화원에서 개최하는 체험활동은 꼭 참여하고 싶을 것 같다.

곡성군에 살고 있어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지리산의 생명과 문화를 찾아 떠난 가을산행

강 상 희(곡성 석곡초등학교 5학년 배수민어머니)

아직은 이른 단풍이 한 나무 한 나무 물을 들이기 시작하는 가을산은 우리에게 웬지 모를 설렘으로 다가왔습니다. 출발과 함께 우리를 반겨주던 가을비도 스산한 가을정취를 듬뿍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보는 가을산행! 집에 두고 온 가족들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큰딸과 단둘이 가보는 여행이어서 더욱 기대가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서로 바쁜 일상에 젖어 대화도 부족한 것 같고 이제 막 사춘기에 접어든 딸아이와의 관계가 짐짓 소원하기도 했던 터라 둘만의 시간 속에서 다소 마음의 여유와 추억을 만들어 보리라 마음먹었습니다. 직장에 다닌다는 이유로 평일에 시간을 내어 여행을 한다는 것은 꿈도 못 꿨는데 다행히 학교측의 배려로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남원 실상사의 고즈넉한 산사는 평안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촉촉이 젖은 사찰을 돌아보며 천 백년 된 기와나 옛 모습 그대로를 지키고 있는 석탑등을 보며 굽이굽이 이어져오는 찬란한 신라불교문화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실상사에서의 가장 좋았던 경험은 TV에서만 보아오던 '발우공양'을 직접 체험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을 '잔반 없는 날'이라 하여 그날에는 음식을 남겨서는 안된답니다. 즐거워야 할 점심시간이 처음엔 몹시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아이들과 일부 학부모에게서 불평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발우공양'을 경험하며 '잔반 없는 날'을 불평하던 내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생경스럽기도 하고 묵언하는 분위기에 압도당한 채 정신없이 마치고 했지만 한 가지 분명히 배운 것은 평소에 너무 넘치게 먹고 쉽게 음식을 버린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식사를 할 때부터 음식을 대하는 달라진 우리의 자세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행)' 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지 싶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꿈결인 듯 들리는 새벽예불을 알리는 종소리와 목탁소리에 뒤척이다 잠에서 깬습니다. 옷깃을 파고드는 새벽이슬을 맞으며 사찰마당을 수놓은 낙엽들을 쓸어 모아 두고는 흐트러진 우리 마음까지 잘 정돈하여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청학동은 맑고 청아한 가을하늘로 우리를 맞아주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갓을 쓰고 두건을 두른 훈장님, 훈사님들의 모습과 땡기머리를 한 작고 귀여운 꼬마 어린이의 모습에서 청학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매스컴에서 많이 봐왔던 터라 초가집에 재래식화장실을 상상하진 않았기 때문에 잘 정돈된 청학동의 모습에 우리아이들이 청학동에 대해 참 좋은 이미지를 심어갈 수 있겠다 싶어 다행스러웠습니다.

대신 인간됨됨이의 가장 기본적인 인사와 예절교육 그리고 부모공경하는 방법까지 두루두루 배워
올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올해부터 공수인사를 해오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옛 인사법에서 비롯된 것이었음을 알게 되었고 훈장님의 인성교육에 대한 말씀 또한 요즘우리 아이
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사람 됨됨이에 기초한 말씀이어서 더욱 우리아이들에게 필요한 시간이었다
고 생각되어졌습니다. 예절과 질서와 평화를 사랑하는 청학동의 정신을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
습니다. 무엇보다 인기가 좋았던 인절미 만들기, 사자소학 수업, 영선도인법등 우리를 위해 정말 좋
은 프로그램으로 준비해 주시고 열심히 교육해 주신 청학동에서의 하루는 두고 온 가족을 잊게 할
만큼 정이 듬뿍 들어 버렸답니다.

막간을 이용한 부모님들만의 산책시간엔 우리가 가까이 두고도 알지 못했던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고, 걸판진 판소리 한마당에선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더 신명나게 가락을 공
부했던 것이 참 재미졌고, 아이들을 위한 노래선물 '마법의 성'을 부를 때엔 코끝이 찡해지며 우리아
이들에게 새롭게 펼쳐진 꿈과 세상을 선물할 수 있어 더없이 감동적인 시간이었답니다.

잠자기 전 밤바람을 맞으며 딸아이를 꼭 부둥켜안고 보았던 별자리 여행! 칠혹 같은 어둠 속에서
보는 카시오페이어나 북극성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산등성이로 어여쁘게 솟아오르던 하현
달을 보며 그 밝은 빛에 소원을 빌어보기도 했답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이틀을 보낸 저희들은 숙소
에 돌아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야기꽃을 피웠답니다. 학교걱정 숙제걱정을 잊은 우리아이들
도 덩달아 저희들끼리 노느라 킁킁킁.....!

마지막 날 도착한 곳은 우리가 사는 석곡에서 불과 5~10분 거리에 있는 심청문화예절학교였습니다.
다도예절을 체험하며 어느새 훌쩍 커서 다소곳한 새색시처럼 차를 따르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참
이번 여행에서 많은 것을 느끼고 얻어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소목을 이용한 인견스
카프 천연염색은 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얼마 전 황토염색을 해 보았지만 천연염색과는 많이
다르다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재료가 다양하고 절차가 복잡하고 재료에 따라 낼 수 있는 그 은은하
고 우아한 다양한 빛깔에 우린 매료되고 말았습니다. 더군다나 한약재인 소목은 머리가 맑아지고
어혈도 풀린다고 하니 일석이조의 효과까지 있어 그 아름다움이 배가 되는 듯 했습니다. 이렇듯 2
박 3일을 즐기치게 달려오던 우리는 잠시 잔디에 앉아 여유를 부리며 함께 사진도 찍고 모임을 갖
자, 서로 연락하자는 등 벌써 이별을 아쉬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염색한 스카프가 마르
길 기다리며 우리의 문화체험을 마무리 했습니다. 각조마다 이름 지어 상을 주시고 부상으로 청학
동 훈장님의 회초리가 주어졌습니다. 부모님들은 즐거운 박수가, 아이들에게선 걱정스런 야유가 터
져 나왔습니다.

2박 3일의 제1회 지리산 생태문화탐사는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들을 보파리 보파리 보듬고 갈 수
있는 참 귀한 시간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입술이 부르트신 문화원 간사님의 모습을 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준비하시는 분들의 결코 쉽지만은 않았을 노고를 생각하며 이 지역을 위해 참 많은 애를 써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알고, 그 자연 속을 말없이 살아가고 있는 착한 사람들이 있으며 그들은 예절을 중요시하며 가장 근본적인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많은 배려로 수고해 주신 문화원가족들과 힘든 일 마다않고 우리를 책임져주신 조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특히 홀몸도 아니신데 최선을 다해주신 성격 좋은 홍 수진 조장님 정말 감사드려요. 멋진 문화관광해설사가 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날의 추억을 되새길 사진 몇 장 보내드립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최 이 슬(곡성 입면초등학교 5학년)

저는 처음에 지리산에 갈 때 놀러가는 건줄 알고 신이났습니다. 하지만 일정표를 받아보니, 첫째날에는 절에서 생활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독교여서 절에서 생활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밥먹는 것도,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도 불편하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먹던 그릇을 닦은 물을 마시는건 정말 드럽고 토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제 곁에는 엄마와 나랑 친한 친구가 있었기에 그것도 가능했습니다. 평소에 시골에 살았어도, 자연을 아끼지 않고, 함부로 훼손하던 나였는데, 내가 싸는 대변과 소변도 그냥 버리지 않는 이곳에 와서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앞으로 자연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길에 있는 꽃을 함부로 꺾는 일은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청학동에서는 정말 쉬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고작 밥을 빨리 먹고 다른 아이들 밥 먹는 시간에 노는게 쉬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처음에 가자마자 배운 공수인사와 절하는 법이 제일 인상깊었습니다. 공수인사는 배워도 내가 평소에 쓰던 인사와는 달라서 어른들께 그때마다 하기 힘들었습니다. 또 절하는 법은 제대로 몰랐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알았으니, 앞으로는 명절때마다 절 안할려고 피부리지 않고, 제대로 된 절을 해야겠습니다.

실상사에서. 그리고 청학동에서 많은 것은 배우고 느꼈습니다. 입면에서 나를 기다리는 친구들, 그리고 가족들, 이웃들이 많이 보고싶었지만, 보고싶은 만큼 많이 배워집에 돌아오니 뿌듯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정말 기쁩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이 하 늘(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오늘은 지리산 탐사를 가는날이다. 아침에 내가 조금 늦게 일어나서 모든 일을 빨리 빨리 했다. 아버지의 차를 타고 군민회관에 갔다. 갔더니 지리산 탐사를 가는 많은 인원들이 벌써 와서 조금은 늦은 느낌의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와 함께 버스를타고 실상사라는 절에 갔다 가는 도중에는나는 멀미가 조금 있어서 힘들기도 했지만 실상사라는 절에 도착했다. 와서 보니 어떤 여자 스님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셨다. 내 생각으로는 참 친절하셨다. 실상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7교구 본사인 금산사의 말사이다. 사적기에 따르면 창건은 통일신라시대인 828년 홍척이 구산선문의 하나로 자리를 잡은 데서 비롯된다. 선종이 처음 전래된 것은 신라 제36대 혜공왕 때인데, 발전을 못하다가 도의와 함께 입당, 수학하고 귀국한 증각대사 홍척이 흥덕왕의 초청으로 법을 강론함으로써 구산선문 중 으뜸 사찰로 발전하였다. 도의는 장흥 가지산에 들어가 보림사를 세웠고, 홍척은 이곳에 실상사를 세워 많은 제자를 배출, 전국에 포교하였는데 이들을 실상사파라 불렀다. 그의 제자로 수철·편운 두 대사가 나와 더욱 이 종산을 크게 번창시켰다. 그 후 임진왜란으로 폐허가 되어 약 200년 동안 승려들은 부속암자인 백장암에서 기거하다가, 조선 제19대 숙종대에 이르러 300여 명의 수도승들이 조정에 절의 중창을 상소하여 1700년에 36동의 건물을 세웠다. 그러나 1882년 사찰 건물이 소실되는 수난을 겪고, 다시 여러 승려들의 힘으로 중건되어 현재에 이른다. 중요문화재로는 국보 제10호인 백장암 3층석탑, 보물 제33호인 수철화상능가보월탑, 보물 제34호인 수철화상능가보월탑비, 보물 제36호인 부도, 보물 제37호인 3층석탑 2기, 보물 제38호인 증각대사응료탑, 보물 제39호인 증각대사응료탑비, 보물 제40호인 백장암 석등, 보물 제41호인 철제여래좌상, 보물 제420호인 백장암 청동은입사향로, 보물 제421호인 약수암목조탱화가 있다.

설명을 듣고나서 작은 학교에가서 선생님들의 말씀을 듣고 고구마를 크고 작은 것을 캐었다. 느낌 점은 맨날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주신 고구마만 먹지만 오늘은 내가 캔 고구마를 먹자 더 달고 고생한 보람이 있었고, 정말 재미있다. 고구마를 캐고 절로 돌아와 문화원 선생님께서 숙소를 결정해주셨다. 나는 다른 학교에서 온 여자들과 함께 잤다. 6학년 언니들이 배개 싸움을 하라고 해서 재미있게 놀다가 시간가는줄 모르고 놀다가 11시 쯤에 잤다. 재미있는 첫날 밤이었다.

둘째날 아침 새벽 6시에 기상을 했다. 원래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지만 초등학교생이라 2시간이나 더 자게 했다.

이불을 정리하고 아침밥을 먹었다. 발효 공양을했다. 나는 워낙 식성이 좋아서 밥톨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먹었다. 그리고 다 먹고 나서 물로 헹군뒤 헹군물을 먹었다 참 행복하지 못한 나의 아침식사였다. 그리고 아침식사를 다 한뒤 경남 하동군 청학동에 가기 위해 버스를 타고 청학동으로 갔다. 남원에서 하동군까지 2시간 30분을 걸쳐서 도착하게 되었다. 숙소에 짐을 풀고 훈사님의 주의사항등을 말씀을 해주셨다. 그리고 점심밥을 맛있게 먹었다. 특히 산나물이 많아서 정말 맛있게 먹었다. 민속 놀이를 하였다. 조별로 활을 쏘아보게 하였다. 활을 쏘 때에는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지만 용기를 내어서 쏘아 보았다 그리고 줄넘기를 하였는데 조별로 줄넘기 시합을 하였다. 나는 조금 줄넘기에 소질이 없어서 하지는 못하였다. 그리고 투호놀이를 하였다. 투호놀이에서 1개도 못 넣어서 조금 실망하였지만, 재미있게 민속놀이를 하였다. 그리고 훈장님의 강의를 들었다. 나는 혼이 날까봐 열심히 들었다 주요 내용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하자는 내용인데 잘 할까라는 생각 번쩍 들었다. 그리고 인절미를 만들었다. 아버지와 같이 방아를 쳐서 정말 재미있었고, 떡을 먹어서 행복했다. 숙소에 돌아와서 언니들과 놀았다 아마 새벽 2시 까지 놀았을 것이다. 언니들은 떠나니까 섭섭한가 버디버디 아이디도 물어보았다. 참 그런게 한국사람들의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짐정리를 하고 아침밥을 먹고 청학동을 떠나 예절학교에 도착했다. 예절학교에서는 여자들이 하는 절이나 사물놀이를 배웠다. 참 흥이 나고 어려웠던것 같다. 예절학교가 끝난후 운동장에서 남자들이 축구를 하고 여자들은 어느 언니가 가져온 고무줄로 고무줄 놀이를 했다.

참 즐거웠다. 한참 재미있게 놀았는데 갈 시간이 되니까 참 섭섭했다. 버스를 타고 한사람 한사람이 내리니까 참 섭섭하고 한편으로는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나도 버스에서 내렸다.

길고 긴 우리의 이야기가 끝난 것이다 나도 다시 한번 기회가 된다면 이 언니,오빠들과 지리산 탐사를 또 가고 싶다.

느낀점은 지리산 탐사로 인해 나를 다시 한번 돌아 보게 했던 것 같다. 그리고 내가 지리산 탐사를 아빠와 같지만 아빠에게 참 미안 했던 것 같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가족과 함께 지리산 탐사를 해보고 싶다

제1기 지리산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이 창 환(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이하늘아버지)

항상 아이들에게 관심이 없었던 아빠로서 이번 지리산생태문화 대탐사에 참여을 하게된 동기는 일주일전 아기엄마가 같이 가야되는데 엄마의 사정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한다고 아빠가 참석을 하였으면 어떻게 냐고 하길래 어쩔수 없는일 이라며 참여을 하게 되었다. 이번 기회을 좋은기회로 생각하고서 참여하기로 마음 먹었다 막상 출발을 하려고 군민회관에 가보니 아빠들의 모습은 보이질 않았다. 조금후 다른 학생의 아빠가 도착하여 다행이라는 생각에 서로가 인사를 하고서 대탐사의 기본인 조별과 인원 점검을 하고서 승차하였다. 전북 남원시 산내면 입석리에 위치한 실상사에서 첫 탐사를 시작하게 되었다. 절에서의 하루생활은 생전 처음이라서 인지 하나에서부터 낯설기만 하였다. 친환경적 농사에 관심을 갖어서 유기농으로 가꾸는 모습을 보고서 참으로 고생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고 그분들의 생활하는 모습에 감사 할뿐이다. 검소한 생활에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가르치는 학생들의 열의에 다시한번 감명을 받았었다. 산사의 저녁은 고요하기 그지없고 아침은 생기가 넘치는 모습을 보았고, 다음 시간의 장소는 청학동에 도착하여 어느 선생님의 말씀처럼 “옛 것이 좋은 것이여”라는 생각에 잠겨 하루을 시작하여 보기로 하고서 몇가지의 주의 사항들을 들으면서 시작되었다. 예전에 한번 찾은곳 이라서 조금은 익숙하겠지 라고 생각 했었는데 이렇게 많이 변화하는 모습에 다시한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사람은 항상 변화하는 생활속에서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옛것은 온데간데 없고 신 건물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비록 걸 모습은 신 건물이었지만 속의 모습은 그래도 옛것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었다 항상 지키는 자와 허무는 자가 있다는 것을 이번 청학동을 방문하면서 다시한번 느끼게 되었다.

그래도 2박3일인데 아이들과의 여행은 다녔지만 단들이 하늘이와의 여행은 처음인지라 낯설기만 하고 서먹서먹 하였기에 좀더 가까워지려고 무던히도 노력은 했었는데, 딸아이도 웬지 아빠라는 사람을 멀리하는 느낌을 받았었다 그래도 사랑하는 딸아이기에 시간이되면 항상결에서 손잡아주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었다. 차츰차츰 시간이 흘러가니 딸에도 아빠에 대한 멀었던 시간들을 가까이에서 느끼려는 흔적이 있었던 것 같았다. 이번 대탐사를 계기로 몰랐던 하늘이의 모습과 또다른 성격의 소유.....,

항상 밖에서만 생활했지 아이들에게는 소홀했던 아빠,

그동안 얼마나 아빠을 많이 원망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니 웬지 마음 한구석이 허전 하면서 미안한

생각이 들게끔하는 시간을 갖었다.

앞으로 시간이 허락하는 틀에서 보다도 많은시간을 내어서 아이들과의 시간을 많이 갖어 보기로 마음 먹었다.

아울러 이번 지리산생태문화 대탐사에 참석하셔서 고생하셨던 문화원 사무국장님, 또한 관광해설과 숲속의 해설가 교육을 받으시며 고생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대탐사의 고마움을 다시한번 느끼면서 가을의 햇볕에 바람을 막아 줄수만 있다면 옹기종기 모여 앉자 놀고 싶은 어린이에 처럼. 감사합니다.



2박 3일의 지리산 탐사를 마치고 ...

강 창 원(곡성 중앙초등학교 6학년)

처음 지리산 문화탐방을 하러 간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분이 좋았다. 하지만 아침부터 1시간 20분이라는 아까운 시간을 낭배하면서 실상사로 출발하였다. 1시간 20분동안 다른 문화재도 볼수 있는데 차만 타는게 너무 지루해서이다. 하지만 실상사를 도착하니 많이 신기했다. 그 이유는 절에 사는 여스님이 직접 절에 대해 설명해준다는 것이다. 다른 절에가면 자신이 둘러보면서 설명문까지 읽어 가면서 문화재를 보는 그런 절이 많았지만 실상사는 여자 스님께서 직접 설명을 해주니 어찌 귀에 쫄쫄 들어오는 것 같았다. 이 절인 실상사는 통일시대 말기때 스님들이 참선하자고 해서 모여 만든 절을 말한다. 그리고 실상사는 다른절과 다른점이 다른절은 산속에 있는 산지가람이지만 실상사는 평지가람에 있는 신기한 절인 것 같다.

또 곡성에는 보물이 7개이지만 실상사라는 1사찰에는 국보1,보물11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실상사는 꼭 필요한 사찰인 것 같았다. 실상사에 들어오기전 다른문은 없고 오직 천왕문이 남아 있던 기억이 난다. 이때 사천왕이 다리밑에 야차들을 밟고 있던 게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처음해 보는 바로 공양을 하는 것이다. 바로 공양을 하는데 너무 어려웠다. 평소 이렇게 먹지 않았는데 이렇게 먹으려니 힘이 드는 것이다. 무려 1시간의 바로 공양을 마치고 청개구리 선생님과 함께한 실상사의 작은학교에서는 고구마 캐기가 한창이었다. 우리집에서 고구마를 재배해서 먹기 때문에 많이 캐 보았지만, 실상사에서는 무공해라서 웬지 흙부터가 달랐다. 그래서 많이 캐지는 못한 것 같았지만 이런 체험도 하는게 참 기억에 남는다. 그리고 힘든 몸으로 방에 들어와 좀 휴식을 한다음 조마다 장기자랑을 하는게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달콤한 저녁을 먹고 발표회를 준비한다. 이렇게 내 느낌을 말하려고 했는데 설명을 한 것 같다. 그래서 남은 2일 동안 즐거운 추억 남기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른 아침 일찍 스님들의 목탁소리에 부스스 눈을 뜨고 실상사를 떠날 준비를 하고있었다. 구수한 아침밥을 든든히 먹고 스님과 힘차게 넓은 마당을 쓸면서 집에 돌아가서도 우리집 청소를 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무거운 버스에 몸을 맡기고 청학동에 도착하였다. 청학동에서는 맑은 공기와 맑은물이 우리를 먼저 반겨주는 것 같았다. 입소식을 마치고 훈사님들의 예절교육을 받으면서 웬지 예절만 가르친다고해서 예절교육이라고 한 것 같았다. 또 쉬운것도 배우니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절밥의 반찬보다 훨씬 맛있는 점심을 먹고 훈장님의 인성교육을 즐린 눈으로 간신히 받고 즐거운 마음으로 전통놀이를 하였습니다. 그중에서 저는 활쓰기가 가장 인상깊었습니다. 그이유는 제가

운이 좋게도 5발중에 3발을 과녁을 통과해서인지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판소리를 배웠는데 내가 음악부인데도 음정과,가사가 너무 어려워서 따라부르지 못한 것이 아쉬웠고 인절미 만들기는 우리 손으로 만든 인절미를 직접 먹어보니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또 맛있는 저녁을 먹고 나서 눈이 저절로 감기는 사자소학을 배웠습니다. 사자소학은 평소 내가 한자에 관심없던 나에게는 힘든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이 저절로 감기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겨우 1일만 남기고 이 저녁을 보냅니다. 내일 마지막으로 곡성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상사에서와 그렇듯 아침일찍 일어나서 곡성으로 향했습니다. 곡성에서는 그리 재미있지 않았지만 바로 천연염색을 한 것이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실크에다가 소목이라는 한약재를 이용하여 염색을 한다는 것이 신기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1차 염색을 할때는 색깔이 진한 것만 골랐는데 마지막으로 매염재처리를 하니깐 웬지 다 색깔이 다 비슷해져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시상식때 발표회의 1,2,3등안에는 들지 못하여서 웬지 너무 슬펐습니다. 그건 아쉽게 탈락했다는 명단에 내가 들어가있었고 같이온 이도영,기예원도 있었는데 어찌 몇분 하지도 않고 들어간 애들이 왜 점수가 높은지 그것 때문에 웬지 많이 슬펐습니다. 다음에는 문화원에서 개최한 행사에는 웬만하면 부모님이 최점을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친한 친구의 아들,딸들만 높게 주니 너무 불공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2박3일동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를 갖게 해준 문화원직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 성 자(곡성 중앙초등학교 6학년 강창원어머니)

아~~ 지난해 경주문화 탐방의 뜻깊고 즐거웠던 기억을 마음에 새기고 지리산권 생태문화탐방 길을 나섰다. 국민회관앞 마당에서 유니폼을 입고서 일상생활을 뒤로 하고 여행의 설레임을 안고 먼저 실상사로 행했다.

가을의 아쉬움을 재촉하는 비가 실상사의 기와를 적시고 뒷뜰 단풍잎에 떨어진다. 간단히 사찰을 견학하고 생전 처음 경험해본 점심.... 그것이 곳 발우공양이다. TV에서 몇번 보았지만 발우공양은 음식에 대한 소중한 고마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다. 그다음날 우리일행을 태운 버스는 가파른 오르더니 한번쯤은 가고 싶은 청학동으로 갔다. 마음의 청학동은 많이 퇴색되고 현실과 타협해버린 청학동이 아쉽다.

예절 교육, 사자소학은 좋은 시간이었다. 특히 인절미를 직접 만드는것이 더욱 기억에 남는다.

문화탐방 3일째 날이다. 이젠 곡성으로 간다니 마음이 가볍다. 죽곡에 있는 심청예절 학교로 가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통차 마시는 방법과 염색체험을 했다. 특히 몇번 해본 염색체험이 어렵고 신기했다. 2박 3일의 짧은 체험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버스안에서 지난 시간을 생각해 본다. 마을 주민들과 재주도, 목포, 부산등 많은 여행을 해 보았지만 이런 체험 여행도 가족과 함께 했으면 더욱 좋았을 것을



지리산 문화 탐사를 다녀와서

김 예 진(곡성 고달초등학교 4학년)

몇주 전 나는 교무 선생님께서 곡성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지리산 통합 문화권역 탐사'가 있는데 가 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들었다.

원래 낮을 가리는 편인 나는 선뜻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그랬더니 엄마랑 함께 가는 것이니까 한번 가 보라고 하셨다. 다행히 엄마랑 함께 가게 되었다고 하니 나도 안심이었다. 그 때부터 나는 설레이었다. 이번 탐사활동에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배우게 될 것인지…….

드디어 사흘 앞으로 다가왔다. 교무 선생님께서 탐사 일정표와 모이는 장소 시간등이 적힌 일정표를 주시면서 잘 다녀오라고 하셨다. 떠나기 하루 전날 저녁에는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으니 옷을 따뜻이 챙겨가라고 전화까지 해주셨다.

드디어 출발일이 되었다. 야호! 신이 난 나는 아침 일찍 일어나 빨리 빨리 여유있게 챙겼다. 그리고 아빠차를 타고 모임장소로 갔다. 이번 지리산 통합 문화권역 탐사에는 많은 초등학교의 친구들과 학부모님들이 오셨다. 입면초, 중앙초, 석곡초, 오산초 등 등…….

차는 1호차와 2호차로 나뉘어 타게 되었으며, 1모듬부터 6모듬까지 있었다. 난 2모듬이다. 불행히도 6학년 성인이 오빠는 2호차에 타게 되었다.

드디어 출발! 버스안에서 우리는 엄마와 함께 자기소개를 차례 차례 하였다. 많은 새로운 친구들을 알게 되었다. 나는 너무 머리가 아픈 것 같아서 잠을 잤다. 그리고 다시 일어났다가 2번씩쯤 반복했더니 실상사에 도착을 하였다. 또, 절에서의 인사와 여기서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를 설명해주었다. 또... 10시부터 11시50분까지 문화유적답사 어른들은 중목스님 안내를 받고, 우리 어린이들은 무구행님 안내를 받았다. 거기에서는 많은 것을 배웠다. 실상사 입구에 있는 것은 하늘의 왕 사천왕이다. 또 절을 보호하고 스님들을 보호한다고 한다. 입구에 들어서서 있는 두 탑은 다보탑과 석가탑이었다. 또는 쌍둥이 탑이라고 한다. 아주 많은걸 들었는데 메모를 잘 하지 못했다. 그리고 점심식은 발우공양으로 하였다. 발우공양을 하였는데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게 되었다. 찌꺼기까지 다 먹어야 했다. 그리고 장기자랑을 하였다. 정말로 재밌었다. 또 과자를 받았다. 실상사 친환

경 농장에 갔다. 그런데 고구마 캐기가 제일 기억에 남을 것 같다. 너무 재밌었기 때문이다. 저녁만은 보통저녁으로 먹었다. 이번 지리산 문화 탐사활동은 이것저것 새로운 우리 문화를 알게 되었으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만약 다음에도 이러한 행사가 있다면 친구들에게 한 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빙 수 현(곡성 중앙초등학교 5학년)

난 이번 여행이 엄마와 두번째다. 1학기때 영암,목포, 보성쪽으로 다녀 왔는데 그때 아무런 마음에 준비도 없이 목포에서 잠을 잤다. 이번엔 석곡, 입면, 삼기, 고달 형과 친구들과 2박 3일로 다녀 왔다. 석곡에 사는 사촌형이랑 작은엄마랑 같이 가서 좋았다. 출발 할 땐 날씨가 흐려 어땡하나 걱정이 되었다. 곡성을 출발하여 남원 실상사에 도착했다. 길가에 코스모스가 우리를 반기는 것 같았다. 난 절에서 잠을 자긴 처음있었다. 점심시간에 발우공양에대하여 스님께서 설명해 주셨다. 밥먹는 단계가 있어서 까다롭긴 했지만 쌀한톨한톨에 소중함과 우리들의 음식물찌거기를 함부로 한다는 걸 깨달았고 집에 돌아가서 학교에서 음식물을 남기지않고 깨끗하게 먹겠다고 마음먹었다.

오후엔 친환경농장과 작은 학교에 가보았다. 농약을 하지 않고 배추랑 여러가지 채소들을 심어 놓았다.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도 하고 농구도 했다. 쌓였던 피로가 다 풀리는 것 같았다.

저녁 땐 사자소학에대해 배웠다. 한자한자 한자는 어려웠지만 할머니, 아빠, 엄마께 말씀 잘 듣고 효도 해야 겠다. 청학동에서 목욕도 하고 우리조랑 한방에서 잠을 잤다.

셋째날은 곡성죽곡에 있는 전통문화 예절학교에 도착했다. 다도, 예절에 대해 배우고 잔디운동장에서 축구를 신나게 했다. 실크 스카프에 염색을 했는데 색깔이 참 곱게 나왔다. 해단식을했는데 다들 피곤해서 지친모습들이었다. 그래도 집으로 간다는 마음에 기분은 좋았다. 난 상을 받지 못했지만 우리조가 상품으로 회초리와 과자를 받았다. 과자는 할머니께드리고 회초리를 아빠께 드렸다.

이번 체험에서 배우고 돌아온 것 친환경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고 어른을 존중하고 부모님께 효도해야 겠고 음식물을 하무로 버리지 않아야 겠다.

다음 기회엔 동생이랑 같이 갔으면 좋겠다. 아주 즐겁고 신나는 체험이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박 영 순(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빙수현어머니)

10월에 가을은 풍성한 계절이다. 산은 산대로 각색에 오색옷을 입고 여기저기서 자기 모습을 뽐낸다. 들벽엔 황금색 쌀알들이 연글어 농부들에 마음을 배부르게 한다. 봄이 지나 유난히도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새 10월 끝지락에 와있다.

이번이 수현이와 두번째 나들이다. 주부들이 2박3박일동안 집을 비우기란 여간 힘든게 아니다. 직장일 생각하랴 집에 남은 가족들 생각하랴 마음을 결정못하고 몇칠이 훌쩍지났다 설레이는 나의 마음을 질투라도 하는양 비가 내린다. 늘 가보는 남원인데 실상사라는 아담한 절이 거기에 있는줄은 몰랐다. 호기심반 기대반에 실상사에 하루가 시작되었다. 내 마음을 설레게한 스님(어찌나 곱게 생기 셧든지)께서 발우공약에 대해 열심히 가르쳐 주셨다. 배에서는 밥 달라고 요동을 치고 스님과 눈이라도 마주칠 양이면 마치 말 잘 듣는 학생처럼 열심히 따라해 보았다. 평상시 먹는 반정도 밖에 못 먹었다.(늦게 먹는다고 스님이 눈총할까봐) 먹는 등 마는 등한 점심을 먹고 친환경 농장을 견학했다. 아담하고 마치 어림없이 동화속에서나 본듯한 작은 학교. 정성을 대해 무농약으로 먹음직스럽게 가꿔 놓은 채소들..... 우린 얼마나 많은 농약과 공해 속에서 살아가는 걸까?

첫째날은 실상사에서 보냈다. 아직 어두운데 실상사에 목탁소리만 가득하고 5섯시에 눈을 떴다. 마음은 벌써 청학동으로 향하였다. 아침 햇살에 떨어지는 나뭇잎들을 빗자루로 이리저리 쓸고 있는 스님에 모습이 왜 그리도 외로워 보였던지..... 꼬물꼬물한 산길을 따라 청학동에 도착했다. 길모퉁이 부터 상투을 튼 할아버지께서 반겨주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는데 기대를 저버렸다. 더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야 볼 수 있다고 하셨다. 말그대로 우린 연수원에 도착했다.

오전엔 "공수"에 대해 배웠는데 평상시 절하는 법과 조문갔을 때 절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배웠다. 막간을 이용해 사철가를 마음껏 뽐내며 우리에게 한소절 한소절 가르쳐준 고향 선배님. 평상시 접해보지 못했던 판소리인지라 매끄럽지 못했지만 열심히 따라 배우느라 시간이 가는 줄 몰랐다.

오후엔 수현이랑 아이들, 엄마들이랑 인절미 만들기를 했다. 재밌게 만들고 맛있게 먹었다. 밤이 오고 긴장과 기대속에 이틀 동안 배우고 느낀 체험발표를 했다. 울음반 찡그린반에 어쩔줄 모르는 아이 당당하게 보고 느낀걸 한줄한줄 읽어내려간 아이. 그래도 자기 주워진 시간에 최선을 다한 아이들이 이쁘기만 했다. 끝날 무렵 아이들에서 용기와 사랑이 가득담긴 "마법의 성"을 합창하며 격려해 주었다. 가슴이 뭉클했다.

늦은 시간까지 '사자소학'에 대해 배웠다. 많이 피곤할 텐데 용기종기 모여 앉아 열심히 배웠다.



둘째날은 샤워도 하고 우리 3조끼리 한방에서 잠을 잤다.

마지막날. 청학동에 선생님들과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고 죽곡에 있는 문화예술학교에 도착했다.

"다도"차마시는 순서와 방법에 대해 배웠다. 아무런 격식도 모른 채 차를 마신 난 부끄럽기도 했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소목(한약제)염색을 했다. 보라빛과 포도주색이 가을햇살에 사랑살랑 휘날리고 실트스카프가 아쉬운 작별인사를 하는거 같았다. 피곤함에 지친 아빠, 엄마, 아이들....

잔디밭에 주저앉아 해단식을 했다. 상을 탔다고 좋아하는 아이 상을 못 탔다고 아쉬워하는 아이 정 들었던 2박 3일간에 체험이 끝났다. 한명에 나오자 없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하고 집으로 향했다. 다음에 또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딸아이와 꼭 다시 가보고 싶다. 딸아이와 남편은 마치 한 달이나 헤어져있는 것처럼 수현이와 날 반겨주었다. 마음이 포근했다.

2박 3일동안 같이 동행하며 앞에서 인솔해준 문화원에 조준원 사무국장님과 배수경님께 감사에 인사를 드리고 싶다. 다른 엄마들과 아이들에게도 이런 기호가 많이 주워 졌으면 좋겠다. 올 가을은 이래서 내 마음이 부자가 된 것 같다.

제1기 지리산 탐사를 다녀와서...

박 순 범(곡성 삼기초등학교 6학년)

오늘 아침 설레인 마음으로 버스를 타고 실상사로 떠났다. 2시간이 지나고 실상사에 도착해서 석 등, 석탑, 극락전, 명부전, 약사전 등 많은 보물과 한가지 국보를 보았다. 그리고 보물과 국보를 다 둘러본 후, 절에서 점심으로 발우공양이란 것을 하였는데, 김치를 물에 씻어서 밥그릇 옆에 붙여놓 후 밥을 먹었다. 그때 먹은 밥은 정말로 꿀맛이었다. 그러나 새옹지마라고 맛있는 밥을 먹은후 씻은 김치로 밥그릇을 닦은 후 김치를 씻은 조금 더러운 물을 마셨다. 정말 역겨워서 죽는 줄 알았다. 그리고 다른 찌꺼기들을 먹는 것은 나에게서 엄청난 고문과 같았다. 그런 다음 씻은 김치를 먹고 나서 농장에 견학을 가 그곳에서 고구마를 캐고 다른 민속놀이도 해보았다. 그리고 돌아와서 저녁밥을 먹고 씻은 후에 내가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발표회가 시작되었다. 다른 많은 아이들도 나처럼 발표를 했는데 정말 잘 하였다. 그리고 발표회를 끝내고 성호와 잠을 자는데 아이들이 정말 시끄럽게 굴어서 정말 밥맛이었다. 마음같아서는 확 패버리고 싶었지만 다른 어머니들을 보고 꼭 참았다. 그리고 아침..... 긴 하품을 하고나서 다른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마당을 쓸었다. 정말 힘이 들었지만, 아침밥을 먹으니까 정말 꿀맛이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청학동으로 갔다. 그곳에 가는 시간도 2시간정도 되었다. 청학동에 도착해서 입소식을 하고 점심밥을 먹었는데 청학동에서는 정말 맛있는 반찬만 나와서 한그릇은 금방 먹어버렸다. 그리고 오후에 전통놀이를 하였는데 활쏘기, 긴 줄넘기, 투호던지기등을 하였는데 그 중 활쏘기가 가장 인상깊었다. 활시위를 당겨서 활을 쏘는 그 순간은 정말 짜릿했다. 그리고 전통놀이가 끝나고 큰절과 공수 인사를 배웠다. 큰절과 공수는 배우기가 쉬웠다. 그러나 그 다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다.

바로 우리 아버지가 판소리를 가르치는 것이었다. 다른 아주머니들은 재미있어 보이셨지만 나는 아주 죽을맛이었다. 그리고 지옥같은 판소리 시간이 끝나고 인절미를 쪼았는데 나는 못 쪼었지만 다른 친구들이 쪼어주어서 정말 맛있었다. 그리고 저녁밥을 먹고 또 다시 큰절과 공수를 배운다음 발표회를 하였는데 시간이 오래걸려서 하품이 늘어졌다. 그리고 발표회가 끝나고 천국같은 잠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리고 아침 청학동에서 아침밥을 먹고 난 후 조별로 모여서 버스를 탔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청전통예절학교로 갔다. 그곳에서 다도 및 예절을 배우고 오후에 천연염색을 하였다. 3번씩 번갈아 가면서 물을 들이는게 참 까다로웠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끝난 3~4시쯤... 발표한 애들중에서 최고로 잘한 3명을 발표하고 버스를 타고 그리운 집으로 떠났다.

2박 3일동안 정말 즐겁고 힘든 하루였다.

지리산 통합문화권역 탐사를 동행하면서

박 종 달(곡성 삼기초등학교 6학년 1반 박순범아버지)

저는 2박 3일동안의 탐사동행을 생각하면서 마치 초등학생이 된 기분으로 마냥 즐거워했다. 정말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한 긴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아빠로서 어떻게 해야하는 것이 교육적일까 고민도 많이 됐다. 하지만 출발하면서부터 매우 깊은 감동으로 마음속깊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처음 도착한 실상사는 여느 산사와는 달리 깊은 심산산골이 아닌 평지에 가까운 위치에 있음이 새삼스러웠고, 우리나라에 소재란, 구산선문중 선종불교를 표방한 최초의 사찰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알수있었다. 사찰에서의 공양은 절약정신의 표본이었고 삶은 영위하는데 좋은 스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실상사 친환경 농장견학에서는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무농약재배 농업도 앞으로 우리농업에 나아가할 방향을 알려주었다. 이튿날 찾아간 청학동, 산천경계가 수려하여 걸음을 멈짓 멈짓 하게 했던 주위경관과 맑은 공기는 속 시원한 심사를 느끼기에 충분했다. 청학동에서의 여러 가지 체험들은 우리자신이 30년 전에 느꼈던 추억들을 끄집어 내주었다. 떡치기, 서당공부 등..... 특히 우리학생들에게는 귀중하고 소중한 좋은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3일째되는날 심청학교 들려 염색체험으로 2박 3일 내내 어느덧 한가지 소홀히 할 수 없는 것들이기에 너무값진 체험이 되었다.

이번기간동안 우리 곡성문화원 직원들이 보여준 일사불란한 안내와 인솔은 한치에 빈틈없는 훌륭한 드라마였다. 우리학생들에게 좋은 인성교육의 한 장르임을 확신케 했던 이번 탐사는 내년에도 또 한번 더 체험해보고싶다. 조준원 국장님을 비롯한 전 안내직원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지리산 생태 문화 대탐사

신 지 원(곡성 석곡초등학교 5학년)

21일 아침 나는 곡성에 있는 국민회관에 도착했습니다. 도착 했을때 정말 아~~ 막막하고, 우리모
둠엔 엄마빠고 다모르는 아이들과 조장, 정말 이 사람들과 2박 3일을 보낸다고 하니, 한숨밖에 안
나오고 밤에는 내가 가장 싫은 발표를 한다니....정말가기싫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기대도 되고, 그
격정과 기대와 함께 저는 차에 탔습니다. 그리고 잠시후.... 실상사 도착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천왕
이 지키는 문에 도착 생각을 확개는 주위환경 정말 생각과 다른 절이었습니다. 사천왕이 지키는 문
에 들어가자 눈이 부리 부리하게 생긴 네명에 정체불명의 사천왕들, 으~ 진짜 겁나게 생겨서 꿈에
나올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짐을 두고 절에 있는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바루공양. 그때를 떠올리면 왁~~ 정말 끔찍합니다. 그러나 음식의 소중함은 알게
되었습니다.그리고, 장기자랑시간이 재미있었습니다. 특히 5조 쿠쿠쿠쿠~ 그리고 그 끔찍한 바루공
양에서 해방, 정상적인 식사후, 발표를 마치고, 씻고 나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밥을 먹고
청학동으로 출발!! 청학동에 가서 조원들과 많이 친해졌습니다.그리고 천학동에서 재미있는 놀이와
공수인사 그리고 맛있는 인절미만들기 등 아주 재미있었습니다. 그리고 끔찍한 3분스피치. 정말 나
가는 말이없고 아무생각도 안납니다.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마지막날. 천연염색을 하고 가는날 정
이 많이 든 조원들과 떨어지려니 슬펐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겠지요.

정말 뜻깊은 2박 3일이었습니다



제1기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 체험 기행문

박 성 숙(곡성 문화원 4모듬장)

곡성문화원으로부터 제1기 지리산 생태문화 탐사단 모듬장으로 함께 동행 해 줄 것을 부탁받고 무척 기뻐다. 더더욱 초등학교 5학년인 딸아이가 각 학교에서 뽑혀온 30명중에 한 학생으로 함께 할 수 있었기에 딸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문화와 생태이야기인데다 우리 꿈나무 어린이들이 부모와 함께 해 보는 2박 3일의 프로그램은 우리들에게 특별한 체험이 될 것이 분명했다. 남원에 있는 실상사 사찰 체험과 그곳에서 운영되는 친환경 농장체험, 그리고 두 번째 날에 경남 하동 하늘아래 첫 동네 청학동 예절학교에서의 프로그램은 더욱 기대가 되었다.

드디어 첫날 아침 7시 30분.

모범적인 행동, 좋은 느낌,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을 첫째로 한 모듬을 책임져야 한다는 국장님의 당부를 상기하며 군민회관에 도착하니 벌써 새벽잠을 설쳤을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모여두고 있었다. 각 모듬을 정리할 때 이름표와 지리산 문화생태 탐사가 새겨진 맞춤형 티셔츠를 나누면서 했던 다짐은 이번 체험이 아이들과 부모님이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되도록 이름을 많이 불러 주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우리 4조 모듬은 중앙초등학교 이도영, 딸 하지연, 죽곡초등학교 조재진, 입면초등학교 김규식, 석곡초등학교 정지훈, 나중에 합류하게 된 공안서당 윤진영 이렇게 여섯 명의 아이들과 그 부모님들이다.

지훈이와 규식은 한참동안이나 이름이 얼굴하고 바뀌어 생각되는 바람에 이름을 바꾸어 부르는 등 애를 먹었다. 나중에 기억하게 된 일은 고구마 밭에서 고구마를 손으로 껍질을 벗겨 주었더니 지훈이가 제일 맛있게 먹었다. 그 모습이 어찌나 멋있어 보이던지 고구마 밭에 땅 닳은 까무잡잡한 지훈이의 매력적인 얼굴을 얼른 머리에 입력했다.

실상사 가는 길은 두 시간 가까운 거리여선지 멀미가 있는 딸아이는 귀미테로 무장을 하였음에도 멀미가 나서 얼굴이 희노래 졌다. 부모와 아이. 이렇게 1대 1로 부모의 각별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기도 했던 프로그램에 모듬장으로서 특별히 돌볼 수 없었던 엄마의 입장이 딸아이에게 미안했

는데 멀미의 휴우증에도 명랑하게 잘 따르고 활동하는 딸아이가 고마웠다.

청학동에서 밤을 맞으며, 낮 동안 하늘은 파란 호수로 청청지역이라고 말하더니 밤에는 별들이 유난히 반짝였다. 밤 시간에 딸아이와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걸으며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더욱 유난히 반짝이는 금성은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 이었다. 이 시간을 잊을 수 있을까? 우리는 오늘을 잊지 말고 저 많은 별 들 중에 반짝이는 금성별처럼 빛으로 살자고 약속했다. 모처럼 모녀가 함께함을 축하했던지 검게 눈앞을 가리던 높은 산위로 반달이 밝게 떠올랐다.

우리 모듬에 우리처럼 모녀가 내내 다정했던 팀이 있었다.

중앙초 6학년 도영이. 같은 모듬인 도영이 언니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딸 지연이는 안달이었다. 그래도 모처럼의 엄마와의 나들이체험인데 나는 지연이를 달랬다. 엄마와 소곤소곤 이야기 하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전교 회장이라고 했는데 말이 없고 얌전한 모습으로 프로그램 체험을 잘 했다. 사춘기일까? 얼굴을 마주치거나 묻는 말에는 그저 싱긋이 웃기만 했다.

지훈이와 규식이는 우리4모듬에서 6학년 형들답게 착하고 의젓해서 모범생이라는 생각을 내내 했었다. 조금은 장난을 해 보고도 싶었지만 엄마가 함께 있어서일까 얼굴에 미소 가득한 얼굴로 프로그램에 응했는데 실상사 농장 체험놀이, '땅도땅도 내땅이다.' 하는 놀이를 얼마나 다부지게 잘 하는지, 특히 국궁(활쏘기)와 투호체험놀이에서 야무진 개구쟁이 모습으로 목표를 관통하는 능력을 발휘했다.

지훈이는 착한 얼굴, 규식이는 개구쟁이 얼굴이다.

규식이는 개구쟁이 얼굴을 하고도 장난꾸러기 동생들 재진이랑 진영이가 장난을 쳐대도 다 받아주었다. 발표시간에는 차분하게 발표를 잘 하더니 좋은 점수를 얻어 세 명을 뽑는 발표 상에서 상을 받았다. 축하하는 뜻으로 꼭 한번 안아주려 했는데 시간을 놓쳐버렸다.

재진이랑 진영이 생각만 하면 장난기 가득한 얼굴들이 눈앞에 선해 기분 좋아진다. 얼굴이 어찌나 밝은지, 마음은 또 얼마나 예쁜지, 그야말로 아이들답다. 진영이는 발표시간에 하루 종일 메모를 못했다고 하면서도 하루 체험을 꾸밈없이 자연스럽게 해 주었다. 공안서당에서 생활하는 진영이는 재진이랑 시도때도 없는 참새장난 속에서도 공안서당에서의 생활을 진지하게 들려주곤 했다.

마지막 날.

심청 전통문화예절학교에서 염색체험을 하다 잠시 쉬는 시간에 재진이가 내손을 잡고 보여줄 것이

있다고 학교 뒤쪽으로 끌고 갔다.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은 작은 고양이.

고양이는 재진이손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장난을 쳤다. 재진은 고양이랑 금방 사귀었다고 자랑을 하며 할머니랑 같이 사는 시골집 이야기를 했다. 집은 초가집처럼 안 좋아도 할머니랑 고양이를 함께 사는 집에 자기의 고양이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다. 학원도 안보내고 실컷 놀게 한다는 재진이 엄마 말을 들어서인지 학교에서 돌아와 고양이랑 노는 재진이 모습이 그려지고 재진의 특별히 밝았던 표정이 주위 환경에 있었구나 싶었다.

이번 행사에 부모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인절미 만들기 만큼 재미있었던 것이 또 있었을까? 부모와 함께 떡을 치는 무거운 떡메를 들고 인절미를 내리칠 때 모두들 즐거워서 환호성이었다.

아니, 아이들에게 힘을 주기위해 들려주는 부모들의 노래 프로그가 더 좋았을 수도 있겠다.

이번 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많은 것을 보고 느꼈다. 특히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가졌던 관심과 사랑은 개인적으로 나에게 산뜻한 사랑의 메시지였다.

모든 생태적인 자연과 사람들, 많이많이 사랑하며 살아야겠다!!



제1기 지리산 생태문화 체험 기행문

하 지 연(곡성 중앙초등학교 5-2)

학교에서 선생님의 추천으로 지리산 생태문화 체험을 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뻐다. 안 그래도 어머니께서 그 체험의 한 모듬장 역할을 맡아서 함께 가고싶었는데 마침 같이 가게되어서 무척 기뻐다.

아침부터 띄어지지 않는 눈을 뜨고 짐을 챙기는 등 준비를 하였다. 어제저녁엔 귀미테를 붙이고 오늘은 멀미약을 먹으면서 멀미 할 것을 대비하여 비닐봉지 까지 챙겼다. 서둘러 어머니를 따라 곡성 군민회관으로 왔다. 몹시 쌀쌀하여 옷을 움켜 쥐었다. 모두 조별로 모였는데 우리학교 전교 회장인 6학년 이도영 언니가있었다. 조금 친해지고 싶었지만 내가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 못 건네었다. 규식이 오빠와 지훈 오빠. 약간 서먹서먹해서 말은커녕 얼굴도 잘 보지 못했다. 4학년인 재진이. 조그만 키지만 요것조것 말을 잘했다. 출발 . 오늘은 실상사를 간다. 귀미테와 멀미약으로 대처를 했는데도 멀미가나서 인상을 찌푸렸다. 실상사에 도착했는데 우리조로 끼게된 한명 공안서당 윤진영이 있었다.

실상사는 평지사찰이며 보물,국보 총 13점 정도가 있었다. 실상사 작은학교인 대안학교에 가서 '땅도땅도 내땅이다' 놀이를 했는데 재진이와 여러 저러 이야기를 많이 나누며 친해졌다. 고구마를 캐는 것은 처음 체험해보는데 참 재밌었다. 고구마를 캐서 가져가 먹고싶었는데 조금 아쉬웠다. 아쉬운 김에 조그만 고구마 하나를 들고 와버렸다.

발표시간이 돌아왔고, 내가 발표를 조금 잘 한것도 같은데 너무 빨리 읽었고, 내용도 이해안되게 읽어버려서 민망하고 참 부끄러웠다. 발표시간에 화진이는 참 재미있게 이야기를 꾸미며 말했다.

다음날은 청학동에갔는데 청학동은 경상남도에 위치하여 멀미를 너무 심하게 했다. 멀미를 하고 울렁울렁한 속으로 훈장님, 훈사님들을 맞이했다. 입소식을 하고 예절을 배웠다. 공수인사와 숙배를 배웠는데 여자의큰절 즉 숙배는 무지 복잡하였다. 너무 복잡해서 요것조것 틀리기도 하였다. 밥을 먹는데 실상사보다는 훨씬 맛있 여러 가지 종류의 식사반찬이 나왔다. 점심식사는 정말 맛있었다.

밥을먹고 쉰 후에 전통놀이 체험을 하였다. 맨 처음엔 국궁놀이를 했는데 빗겨나가거나 튕겨나갔



다. 아쉬운 마음으로 두 번째 투호놀이를 했다 도영언니가 옆에서 했는데 도영언니는 나보다 많이 나와서 부러웠다. 마지막으로 줄넘기를 하었는데 나 때문에 틀린 적도 있어서 미안하고 부끄러웠다. 우리조 대표로 진영이, 재진이, 규식이 오빠가 나가서 23개라는 기록을 따왔다. 기분이 좋았다.

발표시간. 떨리는 맘으로 요것조것 설명을 했는데 부끄러운 기색은 전혀 꺼내지 않고 당당하게 발표했다. 끝은 흐물흐물해서 조금 아까웠다. 우리조 규식이오빠, 도영언니는 발표를 잘했다. 떨리는 건 없었고 약간 더듬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했다. 발표시간이 끝나고 별을 보러 갔었는데 금성의 반짝이는 별빛이 무지 아름다웠다. 그곳 공기가 맑아서 더 밝게보인다고 훈사님이 알려주셨다.

셋째날. 오늘은 심청전통문화예절학교에서 천연염색과 다도를 배우러 간다. 다도는 차를 마시는 예절이라 할까. 차를 마실 때에 맛을 봤는데 녹차보다는 좋은 음료수보다는 별로인 새로운 감각적인 맛을 느꼈다. 앞에 준영이가 앉았는데 준영이는 차를 좋아해서 그런지 차를 달라고 하고 참 신기했다. 차가 어찌 맛있을까. 천연염색은 실크로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실크가 아니었다. 부드럽지도 까칠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랬다. 열심히 열심히 염색을 해서 말려 걷어 와봤더니 자주색으로 되었었다. 시상식을 할 때는 규식이오빠, 주영이, 대성이오빠가 받았다. 모두 발표를 착실하게 잘해서 받은 것 같다. 조금은 샘이났다. 이번 체험은 참 독특하고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배우고 발표시간을 통해서도 자신감을 얻게 되었다. 엄마와 같이 체험한다는 것이 더욱더 재밌었다. 그리고 청학동 발표시간이 끝나고 깜짝 선물인 어머니들의 노래가 감동적으로 들렸다. 그래도 힘들었지만 재밌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이 도 영(곡성 중앙초등학교 6학년)

아침 일찍 설레이는 마음으로 1,2,3 조 4,5,6조가 나뉘져 버스를 타고 먼저 실상사에 도착했다. 실상사에서 실상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밥을 먹었다. 저녁밥은 우리가 보통 먹는 밥이 아니고 발우공야을 했다. 발우공야이란 자신이 먹는 밥을 먹을 만큼만 먹고 밥 한톨도 반찬 찌꺼기도 남김 없이 먹는 것을 말한다. 처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먹냐고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남긴 음식이 얼마나 많은지 생각이 났다. 발우공야를 마치고 발표회를 가졌다. 작년에도 경주에 가서 해보았지만 이번에는 다른 학교 애들 까지 있어서 작년 보다 더 떨렸던것 같다. 다른 아이들이 너무 발표를 잘하는 바람에 나는 별로 못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아침밥을 먹고 청학동으로 갔다. 서당이었는데 예날 서당처럼 좁고 안 좋을줄 알았는데 절보다 훨씬 넓고 화장실도 밑에가 뽕 뚫려있는 것이 아닌 수세식 화장실이 였다. 시설이 좋아서 키패에 부풀려 있는 중 훈장님의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지리산에 오기 하루 전날 소풍을 가서 일까,? 피곤함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래서 자느라고 훈장님 말씀을 못들었다. 다음에는 판소리를 배우고 인절미를 만들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만들어서 더욱 맛있었다. 밤에는 별자리도 보러갔다. 이날도 역시 발표회를 했다. 발표회를 하고 너무 피곤했는지 바로 잤다.

세번째 날, 그디어 그리운 곡성으로 왔다. 죽곡예절학교를 갔는데 자유시간을 조금 가진다음 다도예절을 배웠다. 다도가 복잡하기도 했지만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다. 다도를 배우고 점심밥을 먹고 천연 염색 체험을 했다. 소목이라는 약재로 스카프에다가 염색을 했는데 예쁜 붉은 빛깔이 났다.

만든 스카프는 엄마께 드렸다, 스카프를 다리면 더욱 이뻐진다고 하였다.

2박 3일 간에 지리산 생태 문화 체험. 힘들고 피곤하기도 했지만 재미있었고 절에서 자보고 발우공야도 해보는 힘들었지만 재밌는 추억을 하나 만든 것 같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다. 초등학교 마지막으로 문화원에서 주최하는 엄마와 함께 지리산을 다녀와서 더욱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 금 숙(곡성 중앙초등학교 6학년 이도영어머니)

딸과 함께한 지리산 생태 문화 답사. 작년 겨울은 1박 2일 경주에 다녀왔는데 올해도 이런 행운을 갖게 되어 기대, 걱정, 설레임을 갖고 버스에 올랐다. 가을의 끝자락이라도 된 조금은 쌀쌀한 날씨 어찌나 도영이는 맨 뒷좌석에서 전 날 체험학습이 피곤함을 몰고왔는지 잠에 빠져있다.

실상사에 도착했다. 아늑하고 포근함 맘도 차분해 진다. 실상사는 아침 해 뜨는 광경이 남원 12경 중 하나라고 한다. 발우공양 남생처음 아 ~ 또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경건한 마음으로 음식은 남김없이 깨끗이 먹는다. 음식의 소중함이 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나오고 있나 머릿속을 스쳐갔다.

두 번째 날 청학동 도착. 훈장님의 말씀 중에 남이 잘된 것을 인정하고 나의 생명은 소중히 여기고 자신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계셨다, 어찌나.. 도영이는 이렇게 좋은 말씀중에 었드려 자고 있으니..

전통 문화 체험으로 인절미를 만들었는데 여러 사람의 힘과 정성이 있어 그 맛은 꿀맛이었다.

발표시간. 참가자 모든 학생이 발표도 잘하고 아쉬운 시간이 자꾸만 흘러갔다. 염색체험 소목이라는 약물로 스카프 염색을 했다. 소목은 어혈을 풀어줘 혈액순환에 좋다고 한다.이번 초겨울은 멋스런 스카프를 두를 수 있겠지..

간단한 시상과 함께 2박 3일 동안 함께 한 참가자 들과 아쉬운 헤어질 시간이 왔다. 이번답사를 통해 로또복권 기금을 끌어 올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문화원 관계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박 3일 동안 애써주신 사무장님, 간사님 조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섬진강의 소중함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집으로 향한 버스 안. 조금 아쉬운 점은 도영이가 적극적으로 참여했더라면 먼 훗날 그때가 소중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아름다운 경험이고 체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지.? 욕심이지만 내년엔 현도에게도 이런 기회가 온다면 꼭 참가해야겠다. 다신 한번 문화원 관계자님께 감사드리며 이번 답사에 참가한 모든 분들에게도 항상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스런 지훈에게

김 명 숙(곡성 석곡초등학교 6학년 정지훈어머니)

세상의 생명들이 결실을 맞이하는 넉넉한 가을, 곱게 물든 단풍잎은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해 주는구나.
바쁜 일상 속에 이런 소중한 시간을 지훈이와 함께해서 정말 기쁘다.
엄마가 해줄 수 없었던 것들을 이런 계기로 체험 학습을 하게 되어 너무 좋구나.
실상사에서 하룻밤을 지내면서 느끼는 수학여행을 온 기분이었고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쪽 문살이
비치는 방은 어렸을 적 어깨동무를 하며 뛰놀던 그 때가 생각났었어.
밤하늘의 둥근 달도 유난히 밝았고 동심의 세계로 돌아가 왠지 설레는 기분이었다.
엄마도 느낀 점이 많았다. 엄마가 부족한 점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하지 않았나,
또 지훈이 마음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았나 반성의 기회도 가져 보았다.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고 잠도 같이 자고 사자소학도 같이 따라하니 옛날 학창시절로 돌
아가는 것 같아 좋았어.
사랑하는 아들, 난 항상 너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키울까? 어떤 방법으로 키울까?
염려하는 마음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일관성 있게 너를 키우고 싶다는 거야.
엄마가 항상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
청학동 뒷산에 올라가 밤하늘의 별을 보며 저 별은 금성, 목성, 북두칠성, 은하수.....
별들의 이름을 부르며 이야기 했듯이 사랑하는 지훈이도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사람이
되려면 성실하게 생활 해야겠지?
이번 계기로 엄마도 많이 반성하고 좀더 다른 세계에서 배우고 느끼면서 많은 걸 깨달았다.
엄마를 항상 미소 지을 수 있게 해 줄 거지!
난 항상 믿는다.
지훈이는 해낼 수 있을 거라고!
나의 보물 언제나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씩씩한 아들이 되기를.....!

엄마가

2005. 11. 10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조 재 진(곡성 죽곡초등학교 4학년 1반)

처음에는 지리산 자연생태탐험에 간다고 해서 마음이 설르다. 실상사에와서야 차를 밟고있는 사천황을 보았다. 그런데 사천왕중의 한 명은 기타를 들고있어서 웃음이 나왔다. 그리고 미륵법사님을 보았다. 그런데 똑같은 탐을 2개보았다. 그건 다보탐이었다. 여러 스님들한테 탐의 유래를 듣고 절의 인사법도 배웠다. 고구마를 켈 때 내가 처음에 켜서 기분이 좋았다. 내가 파는 곳에는 고구마가 많이 있었다. 저녁때 발우공양을 할때 음식 찌꺼기를 마셔야해서 끔찍했지만 음식의 소중함을 알았다. 먼저 서당에서 제일 생각났던 건 인절미 만들 때다. 엄마와 같이 해서이다. 훈장님들한테 인사법을 배우고 판소리도 하였다. 그런데 서당이라고 해서 초가집에다 마당은 넓고 수염이 길쭉할 줄 알았는데 마당은 좁고 초가집은 없고 수염 있는 훈장님들도 2명밖에 없어서 실망하였다. 민속놀이를 할때 활쏘기와 제기, 줄넘기, 투호를 하였다 대표 줄넘기로 나와 지훈이형, 진형이가 나왔다. 우리조는 25개로 2등을 하였다. 판소리할 때 조금 지겨웠다. 어른들이 배우는 것이니까... 심청예절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놀이도하고 감도 따먹었다. 다도민속시간에 차 끓이는 방법을 배우고 맛도 보았는데 내가 먹기엔 맛도 이상하고 냄새도 안 좋았다. 하지만 재미있었다. 엄마 스카프를 만드는 시간에 천을 물에 담그고 색을 바꾸고 정말 재미있었다. 드디어 다 완성되었다. 나도 집에서 차나 마셔야겠다. 그리고 엄마와 함께 행동하고 새 친구도 많이 사귀어 좋았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이 현 림(곡성 죽곡초등학교 4학년 1반 조재진어머니)

지리산 생태문화탐사 여러분!

공 수 안녕하세요. 이렇게 펜을 들어보니 2박 3일 동안 지냈던 날들이 생각나네요. 따뜻하고 포근함을 느끼고 싶은 가을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사랑스런 재진이 손을 잡고 배낭을 메고 길을 나설 때 행복했답니다. 군민회관에 도착해서 커피한잔을 마시면서 인사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조금은 어색했지만 버스를 타고 출발할 때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줄 아는 친근감을 느꼈구요. 아이와 함께 한 여행이라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이야기 나눌 시간도 없고 꾸지람만 했는데 아이들과 어느새 친구가 되어 형, 누나라고 부르면서 즐겁게 지내는 모습을 보니 기뻐합니다. 또 유적지를 답사하고 보물들을 보면서 제가 애정을 갖고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어서 그런지 그냥 쉽게 생각하고 지나쳐버렸는데, 그 안에 각기 깊은 뜻과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하나씩 배우면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실상사 발우공양 시간에 우리 재진이는 옆에 앉아서 경건한 마음으로 조용하게 소리없이 먹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 주었는데 소리내어서 먹지 않나, 물은 얼마나 많이 흘려놓았는지 손짓발짓하며 가르쳐주어도 소용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진땀을 많이 흘렸고 중목스님께 너무 죄송스러웠던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나서 내일의 일정을 위해 취침하고 일어난 다음날 아침 새벽공기는 무척 상쾌했답니다. 지리산 청학동은 처음으로 가 보는 곳이라 설레임을 이끌고 가는 발걸음은 훨씬 가벼웠고 도착해서 보니 조용하고 산을 둘러싸고 있는 전경은 너무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생활에 살면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 배우고 깨달음은 나무처럼 자란다는 말처럼 제 자신을 되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보고 듣고 느끼면서 혼자가 아닌 여럿이 모인 공동체 활동을 하면서 좋은 경험과 추억을 간직하고 4조, 5조 어머님들!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헤어지기가 너무 아쉬워 밤새 이야기꽃을 피웠는데 모두들 보고싶네요. 끝으로 이런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신 곡성문화원 가족들에게 감사 드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기쁨도 2배, 행복도 2배, 사랑도 2배만큼 풍요로운 마음을 가득 담아 우리 재진이 손을 잡고 올 때 너무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웠답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 규 식(곡성 입면초등학교 6학년)

지리산 생태문화 대 탐사를 다녀와서...

오늘은 10월 21일. 이른 아침부터 엄마와 함께 아빠의 배웅을 받으며 집을 나섰다. 앞으로 2박3일간을 같이 지낼 타 학교 친구들, 동생들과 합류한 뒤 첫 번째 도착한곳은 지리산의 제일 높은 봉우리인 천한봉의 앞자락에 위치하는 실상사였다. 그전에 다녀본 절들에 비해 초라하고 적어 보였지만 그 의미는 대단했다. 대부분의 절들은 산중턱이나 위에 있는데 실상사는 평지에 위치해 있었고 나라에서 보전하고자 하는 보물들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처음에는 해우소에서부터 모든 시설들이 낯설어서 어떻게 이곳에서 하루를 보내나 걱정이 되었다. 하지만 해우소에서 자연퇴비를 이용해 무공해 채소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는데 건강에 좋다고 한다. 엄마께서 무공해 채소를 직접 키워서 줄 때는 몰랐는데 정말 엄마가 고맙고 자랑스러웠다. 앞으로는 나도 도와야겠다고 생각했다. 고구마 캐기를 하는데 처음 해보는 거지만 어렵지 않고 재미있었다. 저녁시간에는 불교의 종교행사인 발우공양에 참석했다. 나는 기독교인이기는 하지만 해보고 싶었고 해보길 잘 했다고 생각한다. 음식에 대해서 소중함을 많이 느꼈다. 저녁시간에는 발표회도 있었는데 낯선 아이들과 부모님들 앞에서 하려니 조금 떨리기도 했지만 엄마는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다. 스님들의 예불소리와 여러 아이들의 잠꼬대 때문에 잠을 설치기는 했지만 그래도 좋았다.

둘쨋날... 이번 탐사 일정 중에서 가장 기대했던 청학동으로 향했다. 청학동 생활을 해본 아이들의 말에 의하면 무지 안 좋고 훈장님들도 진짜 무섭다고 들었는데 시원한 공기 때문에 눈을 떠보니 아주 좋은 시설에 잘생기신 훈사님들... 설마 이곳이 청학동? 믿기지는 않았지만 진짜였다. 나는 청학동 생활에 금방 적응했다. "공수"라고 하는 인사법도 배웠고 예절법도 배웠다. 배울게 너무 많았다. 부모님들께도 공수로 인사를 했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웠다.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은 인절미 만들기였다. 힘은 들었지만 엄마와 함께 떡메를 칠 때는 정말 호흡이 잘 맞는 것 같았다. 맛도 정말 좋았다. 사자소학도 집에서 책으로 볼 때는 그냥 외우기만 했는데 여기서는 뜻을 금방 알아차릴 수 있게 배워서 좋았다. 나는 그렇게 밝은 별들을 본적이 없다. 하늘에서 별들이 쏟아져 내리는 것 같이 많고 밝았다. 엄마들과 별구경도 하고 이제는 모두 친해진 아이들과도 신나게 놀았다. 엄마들께서도 그래 보였다.

형같은 훈장님들을 두고 하고 떠난 셋쨋날... 우리탐사대는 곡성심청예절학교에서 다도예절을 배우고 천연염색도 배웠다. 황토염색은 몇 번 해보았지만 소목이라는 한약재 염색은 처음 해봐 신

기하고 재미있었다. 며칠만에 축구를 했더니 더 재미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3일간의 생활을 평가하는 시간에 모범어린이상을 내가 받게 되었다. 여러 엄마들께서 내게 점수를 많이 주었나보다. 엄마들께 감사인사를 못했는데 이 글을 통해 꼭 감사를 드리고 싶다. 이번 지리산 생태문화탐사는 정말 잊지 못할 추억들이 참 많았고 배운 것도 많았던 것 같다. 그리고 "차속에서 내내 노래연습을 하던 진영아! 너 노래 꼭 들어보고 싶다. 보고싶다. 친구들아! 동생들아! 다음에 또 기회가 있겠지? 나 기억해라 규식이..."

『입면초등학교 6학년 김규식 어머니 조동순』

내생에 기인 추억이 될 지리산 생태문화 대 탐사

"정말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 걱정말고 다녀와."

"정말로, 진짜로???" "한번만 더 물으면 가지 마라 한다."

탐사를 앞두고 우리 부부의 주 대화내용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하고 처음 나서는 긴 외출이었기 때문에 설레임보다는 걱정과 두려움이 먼저 앞섰다. 남편에게 어린 두 아이들을 맡기고 큰아들 규식이와 탐사대에 합류하여 처음 1박을 한곳은 남원에 있는 실상사였다. 개인적으로 기독교인이지만 저녁시간에 하는 발우공양에도 참석하였다. 타종교행사지만 좋은 경험이었고 음식에 대한 새로운 의미도 갖게 되었다. 학교와 학원에서 공부만 하던 우리아이들 '신선한 공기, 무공해 야채에 고구마 캐기, 감 따기...' 자연에 깊이 묻혀 행복해 보인다. 그래서인가? 저녁시간에 하루를 보낸 발표 시간, 규식이는 나에게 감동을 주는 인심까지 썼다. 여러 일정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걱정과 두려움만 앞섰던 마음들은 간데 없고 새삼 설레는 것이 있었다. 달빛을 받고 문지방에 그려진 그림들이 너무 멋지고 제각각 운치가 있던지 감상을 하느라 그 기분을 글로 표현하기는 힘들 것 같다. 고향집의 문지방과 학창시절의 수학여행을 합쳐놓을 것 같은 설레임. 그렇게 밤을 보내고 탐사대는 둘째날 청학동으로의 일정을 떠났다. 상상 속의 청학동과는 동떨어진 현대 시설과 수영을 가르치지 않은 젊은 훈장님들, 하지만 교육만큼은 확실한 것 같다. 한시간여 교육 받은 우리 학생들 모두 선비들처럼 반듯하게 행동하는걸 보니..... 여러 일정 중에 인절미 만들기는 정말 좋았다. 모두들 신나고 하나되었던 떡매치기는 요즘 보기 드문 모습이기 때문에 더 추억에 남을 것 같다. 무척 청명한 하늘덕분에 밤에는 언덕에 올라 별을 감상했다. 어색하고 낯설어서 서로 탐색만 하던 타 학생과 학부모들 어느새 "언니", "언니" 하며 밤새 이야기 엮다 하루만 더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으로 날이 밝았다. 셋째 날은 곡성에 있는 심청예절학교에서 다도도 배우고 염색도 배웠다. 아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축구공이 더 재미있나보다. 집으로 돌아왔지만 밤이면 실상사의 문지방과 청학동의 별하늘이 낮이면 코끝이 향기로운 청학동의 공기가 그리워진다. 무엇보다도 나의 첫 외출이 아주 상쾌하고 알차고 성공적이었다는 게 너무 기쁘다. 그리고 두 아이를 맞으며 배웅까지 해준 남편 모두 감사 드립니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조 경 민(곡성 중앙초등학교 5학년)

10/21

설레이는 마음으로 버스에 탔다. 다른조는 6명인데 우리조만 4명이어서 참 편했다. 5학년 2명, 6학년 2명이다. 조원들도 참 마음에 들었다.

첫째날에는 실상사에 갔다. 실상사는 남원에 있는 유명한 절이다. 설명을 듣고 밥을먹었는데 무엇보다도 역시 밥을 먹는게 제일 힘들었다. 나는 종교가 달라서 공양급식은 안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반찬이 맛있고 이상했다. 또 그것을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한다니... 다행이 자율배식이었다. 다 먹고는 씻고 제자리에 놓는다. 발표회를 했는데 잘 하지 못해서 아쉬웠다. 여기서 하룻밤을 묵고,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쓸기를 했다. 다른 친구들 다 갔는데 나만 하고 있어서 빨리 뛰어가서 모였다. 화장실도 더럽고 냄새나고 그랬다. 역시 절은 힘든가 보다.

10/22

다음은 청학동으로 출발했다. 우리반에 청학동으로 1주일간 갔다온 친구가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 아주 힘들고 매도 많이 맞았다고 한다. 그래서 조금 겁도 났는데 생각한 것 보다는 힘들지 않았다. 처음오고 예절교육을 했는데 공수인사와 큰절, 사자소학도 조금 배웠다. 상당한 인내심이 필요했다. 평소에 공부를 안하니깐 이런데에 와서 고생하나보다. 여기 음식은 진짜 맛있었다. 우리집 보다 푸짐하고 맛있는 음식이 나왔다. 잠시 쉴 틈도 없이 활쏘기에 들어갔다. 기다리기가 지루해서 중간에 줄넘기, 투호놀이, 제기차기 등등을 하고 놀았다. 내가 활을 쏠때는 작을 활로 쏘는데 큰 활로 다시한번 쏘 보고 싶다. 왜냐하면 잘 안맞았기 때문이다. 방에 들어가서 바둑, 오목을했는데 조장님이랑 바둑해서 졌다. 이런데선 제주도 많아야 살아남는가 보다.

늦은 밤, 사자소학을 공부했다. 역시 한자를 모르는 내 수준에는 너무 어려웠다. 이때는 서당애들이 부러웠다. 왜냐하면 평소에 한자공부를 많이 해 두어서 잘 했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부모님들도 조금 왔는데 '영선도인법'이라고 운동도 배웠다.

발표회를 하는데, 뭐든지 하면 맨날 1조부터 해서 뒤에있는 우리조랑 6조가 짜증을 많이 냈다. 나도 짜증났다. 이번발표회는 그래도 저번보단 잘한 것 같다.

심사가 기대된다.

10/23

여기서도 하룻밤을 묵었는데, 내가 잘때 이를 가는 습관이 있어서 어떤 아줌마가 들었다. 좀 창피했다. 어쨌든 2시간 30분을 달려서 다시 곡성 죽곡에 있는 '곡성심청문화예절체험학교'를 갔다. 이름도 맞는지 모르겠다.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했다.

예절교육 할때는 차 따를때 기구와 차 따르는 방법을 배웠다. 그렇게 섬세한 부분이 있는지는 몰랐다. 열매와 씨 공부를 하고 밥을먹고 염색 체험에 들어갔다. 우리 누나도 염색을 해봤는데 황토염색이었다. 나는 천연 염색을 하기 때문에 더 예쁠 것 같다. 천을 물에 묻히고 약재로 만든 물에 넣었다. 벌써부터 색깔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참 재미있었고 말릴 때에는 종합 발표회를 가졌다. 발표회에서 내가 순위에 들지는 못했지만 내가봐도 잘 한것 같다.

마치면서.....

처음에는 가기 싫었지만 이제와서 보니 참 재미있고 보람찬 체험이고 고생도 웬만하게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체험이 나중에 가서 좋은 추억이 되기를 바란다. 또 체험을 하면서 같이 따라온 카메라멘님이 자랑스럽고 내가 방송에서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또 힘써주신 조준원 사무국장님, 각조 조장님들께서 많이 고생하신 것 같다. 역시 내가 생각하기엔 우리 5조 조원들과 5조 이국섭 조장님이 제일 잘 한 것 같다. 모두들 고생하고 수고했다.

앞으로도 이런 체험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다.



지리산 통합문화권역 탐사를 하고나서....

임 성 인(곡성 고달초등학교 6학년)

9시에 실상사를 향해 출발하였다. 내 가슴은 웬지 모르게 긴장되고 있었다. 왜냐하면 실상사에 가서 얼마나 재미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니 내 가슴이 긴장되었다. 10시 20분쯤 실상사에 도착하여서 짐을 두고 실상사에 있는 문화유산, 보물을 보러 갔다. 다 보고 난 뒤 조금 쉬고 작은 학교에 갔다. 작은 학교에서 고구마를 쪄다. 내가 켄 고구마는 비록 작지만 힘들게 켄 것이라 산 것보다 더욱 맛있었다. 그리고 우리는 장기자랑을 하였다. 그런데 나는 도저히 부끄러워서 앞에 나가서 장기를 보여줄 수 없었다. 이럴 때 나는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다. 자꾸 잘 해야지 생각하면서 하지 못한다. 다 끝나갈 무렵 4,5,6조는 발우공양을 하러 갔다. 절 밥은 맛이 없었다. 이 체험을 하고 나서 생각하였다. 이제부터는 우리 곡식을 사랑하고 아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 다음 날 아침 청안동 서당에 갔다. 청안동 서당은 서당이라서 구식인줄 알았다.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평건은 잘못 알고 있었다. 서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식인 것만은 아니었다. 청안동 서당도 구식이 아닌 신식이였다. 먼저 짐을 두고 훈장님의 교훈, 충고, 말씀을 들었다. 훈장님의 교훈, 충고 중 나는 "부모님을 섬기고 사랑해라!"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꼭 지켜야 겠다. 그 다음 민속놀이를 하였다. 민속놀이에서 내가 가장 재미있게 했던 민속놀이는 활쏘기이다. 처음에는 서툴고 잡기도 힘들었지만 점점 자세도 나왔다. 마지막 발 정 중앙을 맞추어서 기뻐다. 그리고 떡을 내가 직접 만들어 먹었다. 떡을 찰 때 들기도 힘들고 찌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어머님과 같이 떡을 찌서 힘도 덜 들고 잘 찌졌다. 이제 먹을 시간.... 나는 기뻐다. 왜냐하면 나는 먹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몰래 한 개씩 빼 먹는 것 더욱 맛있었다. 이제 집에 갈 시간 밖에 안 남았다. 기쁘기도 하고 후회되기도 한다. 이런 기회가 오면 또 참가하고 싶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정 대 성(곡성 입면초등학교 6학년)

나는 이번에 친구 규식이 지리산에 간다길래 나도 따라가고 싶었는데 선생님께서 나에게 나도 갈수 있냐고 말씀하시길래 간다고 하였다.

드디어 가는날. 군민회관에 가니까 사람들이 많았다. 나는 5모듬이다. 우리 조장님도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이름을 잊어버렸다. 그리고 우리 조원들도 만났다. 총 6명인데 우리 조 한명이 못오고 또 한명이 못온다고 해서 우리 조는 단 4명밖에 없었다. 그런데 한명이 안보였다. 그 친구는 윤진영 이고 공안서당에 다니는 아이다. 나는 아직도 서당에서 학교 대신 공부를 하는 애가 있다니 정말 신기했다.

여러가지 설명을 듣고 옷을 배부받은 후 출발했다. 나는 가면서 설명해 주시는 여러가지를 듣고 어른들 이야기를 듣다가 조금 잤다. 그런데 도착해 있었다. 벌써 실상사. 비가 왔다. 날씨가 별로 안좋은것 같아서 기분이 별로였다. 가서 방에 들어가 봤다. 방은 꽤 넓었다. 원래 방이 아니라 다른 강당 같은곳 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사용했다. 가서 짐을 풀고 여러가지 문화재를 답사하고 나서 밥을 먹고 놀다가 또 여러가지를 하고 발우 공양을 했다. 너무 엄숙해서 좀 이상했다. 발표회 에서 나는 뒷장이라 번호가 늦었다. 그래서 계속 준비해서 발표를 했다. 다른 사람이 하는걸 보고 떨렸지만 다른 사람이 잘 하지 못한점을 나는 잘 하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다시 잤다. 원래 빨리 자는데 조금 늦게 잤다.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세수를 하고 씻었다. 그리고 나서 밥을 먹었다. 그리고 다시 출발해 청학동에 갔다. 나는 청학동이 靑學洞인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 靑鶴洞이었다. 푸른학. 나는 조금 떨렸다. 그곳에서 훈장님을 만났다. 좀 심심했는데 방에 장기가 있어서 애들과 바둑, 장기를 두었다. 재미 있었다. 활도 쏘고 인절미도 만들었다. 인절미 찢는 망치가 너무 무거웠다. 정말 맛나게 먹었다. 그리고 또 발표회 시간이 돌아왔다. 이번에는 3분 스피치라 떨렸다. 다른사람도 보고 하길래 나도 그렇게 하려 했는데 엄마가 그냥 긴장하지 말고 느낌을 말하라고 해서 했다. 그리고 다시 잤다. 그리고 다시 아침에 일어나서 곡성으로 갔다. 좀 꼬불꼬불 해서 어지러웠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곡성 예절.... 으로갔다. 그곳에서 전통 차 먹는 법을 배우고 염색을 한 후 왔다. 정말 재미 있었고 즐거웠다. 그리고 시상에서 우리조가 미스터리상을 받았다. 황당했다. 그리고 내가 발표회 1등을 했다. 정말 좋았다. 그리고 내가 방송에 나왔다. 정말 즐거웠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 상 희(곡성 입면초등학교 6학년 정대성어머니)

계절의 문턱에서 제각각 예쁜 옷으로 물들인 오색단풍의 계절 가을에 2박 3일의 탐사를 가기 위해 짐을 챙기는 마음은 아마도 학창시절 수학여행을 떠나는 그 설레임이었으리라.

가족과 주부라는 이름의 짐을 벗고 아들과의 특별한 여행....

새로운 사람들과의 어색함과 낯설음도 곧 친근감으로 바뀌었다.

처음 실상사를 향할때 비가 내려 속상했는데 우리의 마음을 아는지 다행히도 비가 그쳐주었다. 여러가지 체험 중에도 발우공양을 엄숙하고 어색했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함부로 버렸던 작은 음식도 소중함과 감사함을 느끼게 했고, 청학동에서의 사자소학, 예절교육은 평소에 지나치기 쉬운 우리 일상의 나쁜 습관을 다시한번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탐사는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여행에서는 관람을 하는것이 고작이었는데 평소에 접해보수 없는 여러가지를 체험할 수 있어서 더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오고가는 버스 안에서 모처럼 아들과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생각하고 챙겨주며 사랑을 전해준 계기가 된것 같다.

이번 2박 3일의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내생애의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이다.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를 마치고

문 지 연(곡성문화원 6모듬장)

곡성문화원에서 주최한 2박3일의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가 작은 설레임속에 시작되었다. 군민회관에서 반가운 첫 만남을 가졌고 이어 남원실상사에 도착하였다. 실상사의 프로그램은 문화유산해설, 고구마캐기, 그리고 발우공양등이었다. 생전 처음 절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날 지리산 청학동서당으로 향했다. 멋진 선사님들이 반겨주었고 이어 예절교육, 떡만들기, 활쏘기, 사자소학등 알찬 프로그램들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 곡성에서 다도와 염색으로 전체 프로그램을 마무리 하였다.

내가 맡은 팀은 6조.

공한서당, 석곡초, 죽곡초, 중앙초, 입면초등학교 학생들로 구성이 되었으나 금방 친해지는 친구들을 보고 아주 놀라웠다. 2박 3일 내내 꼭 붙여 다니며 서로 챙겨주고 힘든 발표시간이 되면 다독겨주고 어른들에게서도 보기 힘든 모습들을 보여 줬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우리 팀에게도 한번의 위기가 있었다. 조금 심한 장난으로 팀 분위기가 살얼음판이 되었는데 아이들 스스로 합심하여 화해를 시켰고 그 이후로 우리 팀은 더욱 단단해졌다. 그 모습을 지켜본 난 6조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대견스러웠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나와 눈이 마주 칠 때마다 예쁜 미소를 보내주던 예원이, 늘 밝고 의젓한 모습으로 꼼꼼히 팀을 챙기던 진혁이, 내옆을 꼭 붙여 다니며 고민을 풀어 놓던 다정다감한 대근이, 누나 형들의 귀여움을 독차지 했던 현우, 여성스러우면서 애교가 넘쳤던 주영이, 그리고 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던 씩씩한 용진이, 맛있다고 내 입속에 호주머니 속에 무언가 넣어주던 아이, 힘들지 않냐고 안부를 물어주던 아이, 짧은 시간임에도 자기 속내를 드러내던 아이...

모두다 너무도 사랑스러웠다.

2박 3일 모든 일정을 정리하며 두 아이의 엄마로서 많은 것을 얻은 시간이였고 또 한 모듬으로 짧은 인연이었지만 소중한 만남이었다.

오래 동안 잊지 못할 것이다. 여러모로 도와주시고 챙겨주시고 격려해주신 우리 6조 친구들과 6조 어머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여 현 우(곡성 중앙초등학교 5학년 4반)

나는 지리산 생태문화 대 탐사에 10월 21일~23일 동안 참여하였다. 나는 정말 기대감에 차 있었다. 드디어 10월 21일이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군민회관으로 모였다, 지리산 탐사에 정민이와 수현이가 간다고 들어서 정말 기분이 좋았다. 우리 조는 나, 대근이형, 예원이누나, 주영이누나 진혁이형, 용진이다. 나는 6조이고 2호 차에 타서 첫 코스인 실상사를 향했다. 시간이 꽤 걸려서 한 숨 자고 일어나 보니, 실상사에 도착하였다, 나는 기독교여서 절은 싫지만 이 탐사는 체험을 목적으로 삼았다고 생각하여 버스에서 내렸다. 처음에 짐 정리를 하고 우리는 무구행님의 안내를 받았다. 실상사는 아주 특별한 절인 것 같다. 점심을 먹고 작은 학교를 견학했다. 그 곳에서 고구마를 쪄다. 크고 작은 고구마가 나올 때마다 나는 뿌듯하였다. 저녁에 발표를 하고 취침을 하였다. 이 절에서 느낀 점은 조금 힘들었지만 내가 환경을 살리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대견스럽고 자랑스럽다.

10월 22일 토요일 둘째날... 아침 일찍 일어나 절 안을 청소하고 경남 하동군에 있는 청학동을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공수 인사와 큰절하는 법을 배웠다. 우리나라는 동방 예의지국 인데 나는 이제까지 너무 예절을 몰랐던 것 같다.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것을 배워가야겠다. 그 뒤 점심식사를 했는데 절 음식보다 더 맛있고 편안하였다. 점심식사 후 전통놀이를 했다. 국궁, 단체줄넘기, 투호놀이, 제기차기등 여러 가지 재밌는 걸 했다. 그런데 쉽게 생각했던 줄넘기도 너무 어려웠고, 국궁은 하나도 못 마쳤다. 모든 일은 쉽게 생각하면 큰 코 다친다는 걸 알았다. 그 뒤 훈장님의 인성교육을 받았다. 훈장님이 말씀하는" 남이 잘하는 것을 인정하자!"라는 말을 마음깊이 새겨 두어야겠다. 그 다음 난생처음 인절미를 만들어 보았다. 어머니와 함께 인절미를 만들어서 먹어보니 사서먹은 인절미보다 훨씬 값지고 맛있었다. 저녁식사 후 훈장님께 사자소학을 배웠다. 사자소학을 배우고 '활인심법'이라는 도인체조를 배웠다.아침마다 하면 건강에 좋을 것 같다. 저녁에 우리조 형, 누나들이랑 오목도 두고, 알까기도 하였다. 그 뒤 취침을 하였다.

10월 23일 일요일 마지막날... 드디어 그리운 곡성으로 돌아가는 마지막날이다. 청학동에서 곡성 심청 예절 학교를 가는 중에 섬진강의 풍경을 보았다. 이 풍경은 세계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풍경이다. 이 풍경을 보면서 드디어 심청 예절학교에 도착! 도착하자마자 다도를 배웠다. 다도란 차를 마시는 법을 뜻한다. 다도에는 크게 다지잔, 다과, 물식힘사발, 수구 등이 있다. 다도를



배운 후 우리 조는 어머니 팀대 어린이 팀으로 축구를 했다. 결과는 우리가 졌다. 그 뒤 점심을 먹고 천연염색을 체험했다. 천연염색은 일반 황토염색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한다. 천연염색은 옷감도 비싸고 염색을 하는 물건도 비싸다. 천연염색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처음에 붉은 색으로 물들였다가 헹구고, 다시 보랏빛 색으로 염색을 한다. 염색 체험을 다 끝내고 마지막으로 해단식을 했다. 조별 시상식 때 우리조는 안 받는 줄 알고 실망하였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런데! 마지막으로 사무국장님이 "으뜸상 6조"하고 해서 기분이 좋았다. 그 뒤 우리 집으로 왔다. 이번 2박3일간 대 탐사를 통해 예절은 무엇이며, 또 그 예절을 어떤 데에 쓰는 것을 알았다. 이번 탐사를 하기 전에는 어른들한테 버릇없이 굴 때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 10월23일부터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공동체 생활과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았으니까...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서 귀 숙(곡성 중앙초등학교 5학년 4반 여현우어머니)

지리산 생태문화탐사를 마치고 현우에게

사랑하는 현우야...

문화원주최로 지리산 탐사를 어린이와 엄마들이 같이 동행하여 떠난다 할 때 엄마는 늘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아빠와 형이 머물고 있는 집을 뒤로한 채 걱정 반, 기대 반이 뒤섞인 마음으로 짐을 꾸려 집결지로 향했지. 그런데 현우 너도 알지? 떠나기 3일전쯤 엄마는 심한 몸살감기로 많이 아팠었어. 넌 걱정 어린 눈빛으로 "엄마 괜찮아? 갈 수 있겠어요?" 하고 물었었지. 그래도 이미 약속된 일정이었기에 또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꼭 참고 탐사단에 합류했지. 조별로 모여서 발대식을 가질 때 엄마도 낯설은 얼굴들이 조금 쑥스럽기도 하고 어색했지만 같은 목적으로 자녀들로 인해서인지 금방 친숙해 질 수 있었다. 첫 행선지인 실상사 체험은 기독교신자인 엄마도 타종교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구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연을 아끼고 친환경농업으로 농사짓고 공동체 삶은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 실상사 주민들이 이기주의이면서 환경이나 자연보호는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좋은 교훈을 남겨주었구나. 실상사를 체험하고 발표하는 시간에는 제각기 느낀 바를 용기 있게 발표할 때 엄마는 진정으로 많은 박수를 현우와 친구들에게 보냈단다.

둘쨋날... 지리산 청학동에서의 체험도 정말 귀중했구나. 우리나라 고유의 예절법과 전통놀이 또 훈장님의 인성교육말씀은 엄마의 삶에 적용시켜야겠다고 다짐 또 다짐했었지. 침! 칠흑같이 어두운 지리산 자락에서 밤에 별보기도 빼놓을 수 없는 추억이구나. 현우가 여기저기 별자리를 알려주어서 엄마는 참 좋았어. 비록 청학마을에서 하루의 체험이었지만 참 감사한 마음이 들더구나. 누군가의 수고와 힘이 뒤따랐기에 우리가 이렇게 멋진 체험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 마지막 우리고장 죽곡 심청학교에서도 처음 접해보는 다도법, 천연염색, 현우와 함께 해서 더욱 값지고 좋았어. 무엇보다도 현우가 형, 누나, 동생들과 더불어 잘 어울리고 협력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소중한 체험을 하고, 마음과 몸이 성숙해 진 것 같아서 엄마는 마음 뿌듯하고 엄마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단다. 현우야 이번 지리산 탐사를 통해서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끊이질 않고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서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엄마는 이 글을 줄인다. 현우를 사랑하는 엄마가...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기예원(6조 곡성 중앙초등학교 6학년 1반)

오곡백과 물들인 가을하늘을 바라보며 엄마와의 여행을 떠났습니다. 버스를 타고 창 밖을 바라보는데 정말로 코스모스와 갈대들, 노랑, 빨강계 물들인 단풍들이 너무도 예뻐했습니다. 여러 학교 학생들이 모인 것이라 질서도 지키지 않고, 팀장님들도 무척 힘들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생활한다는 것도 협동심을 기를 수 있었고 부모님의 감사함도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배우고 참 재미있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폭넓게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연옥(6조 곡성양초등학교 6학년 1반 기예원 어머니)

그리 마음 편한 마음으로 지리산 생태문화탐방에 나선 건 아니었다. 하지만 절에서의 생활도 생소했고 청학동에서의 맑은 물, 울창한 숲, 활기찬 공기에 흠뻑 젖어들고 말았다. 빨강계 물들인 단풍잎들을 바라보며 섬진강 길을 달릴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다. 우리 아이들이 청학동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직접 보았으면 더욱 보람된 체험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1기 지리산 생태 문화 대탐사

김 주 영(곡성 죽곡초등학교 6학년)

지리산 생태 문화 대탐사에 참여를 해서 '실상사'라는 절도 알게 되었고, '실상사'는 다른 절과는 달리 대·소변을 따로 모아서 거름으로 이용하고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짓는다고 한다.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도 많이 나오지 않고 해서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절이구나!'하고 느낄 수 있었다.

실상사처럼 많은 집들이 음식의 소중함을 알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을 좋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청학동에 가서는 예절에 대해 배웠는데, 조상님들께서 웃어른께 어떻게 대하는지 알게 되었고, 청학동에서 하는 인사도 알 수 있었다. 청학동에서 하는 인사가 맨 처음에는 쑥스럽고 창피했지만 그 인사가 절대로 창피한게 아니라고 하시는 훈사님의 말씀을 듣고 청학동에서 배운 인사를 잘 할 수 있었다. 청학동에서는 웃어른께 어떻게 대하는지 또 예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예절에 대해 궁금하거나 배우고 싶다면 청학동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미자(곡성죽곡초등학교 6학년 김주영어머니)

우리 가족을 위해 되도록 농약을 적게 쓰고 농사를 짓고 있는데 실상사가 무농약 농사를 짓는 것에 비하면 나는 너무 편하게 농사를 짓는 것 같다.

앞으로는 힘이 조금더 들더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 농약을 쓰지 않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다.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이 대 근(곡성 입면초등학교 6학년)

지리산을 다녀와서

나는 내일 지리산 문화 대 탐사를 가기 위해 일찍 자려고 했는데 너무 들뜬 나머지 잠이 오질 않았다. 잠깐 잤는데 나는 늦은 줄 알고 깜짝 놀라 눈을 떴다. 갈 준비를 다 끝내고 형인이 이모 차 타고 곡성으로 향했다, 너무 설레었다. 너무 일찍 나와서 밥을 안 먹는 사람을 위해 준비했다고 빵과 음료수를 줬다. 그리고 엄마와 나는 6조라고 이야기 해 주셨다. 1조부터 3조까지는 검정티, 4조부터 6조까지는 흰티였다. 첫 번째 코스는 실상사에 있는 절이었다. 어릴때는 엄마, 아빠를 따라서 절에 가 보았지만 향냄새는 좋았는데 지금은 교회를 다녀서 그런가 향냄새가 좋지 않았다. 이번에 실상사 절에는 다른 절과 다른 것 같았다. 일단 실상사 절은 환경을 먼저 생각한다고 한다. 풍을 싸면 퇴비 한바가지를 부어 풍과 발효시켜 비료로 쓰인다고 한다. 작은학교 형아들도 만났다. 형아들과 농구도 하고 또 축구도 했다. 우리들이 고구마도 쪄다. 처음 해본 일이라 재미는 있었다. 저녁밥 먹을 때는 엄마와 나는 발우공양을 하기 위해 큰법당에 들어갔다. 엄숙한 분위기에 모두 아빠다리로 허리를 펴고 앉아 있었다. 내가 먹을 양 만큼 가지고 가서 남기면 안되고 다 먹어야 된다고 했다. 맛있는 반찬이 없었지만 그래도 이것저것 다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가 먹는 밥그릇을 그 물로 씻어 우리가 그 물을 마셨다. 못할것 같았는데 하니까 어려운게 없었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실상사절에서 배운 것은 음식을 남기면 안되고 음식의 소중함을 느꼈다. 공기가 맑고 좋은 환경속에서 오염되지 않고 계속 지속됐으면 좋겠다. 둘째날은 청학동에 갔다. 맛있는 훈장님과 훈사님들이 우리를 반겨 주었다. 훈사님들이 우리들에게 공수란 인사법을 알려 주었다. 그래서 아썸직까지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공수로 인사를 하고 있다. 엄마와 같이 인절미떡 방아도 쪄다. 무거운 방아였는데 언제 이런 것을 하겠는가... 그래서 너무나 열심히 힘껏했다. 우리가 만들어서 그런가 너무 딱이 쫄득쫄득 맛있었다. 사자소학도 배우고 간단헌 예절도 배웠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친구들도 친해졌고 또 무엇보다도 바꿀수 없는 부모님에 대한 효도, 그리고 거짓말 치지 않기, 또 컴퓨터 많이 안하기, 음식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다. 또 다음에 이런 기회가 있다면 또 와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반성도 많이 할 수 있도록 꼭 한번 다시가고 싶다. 엄마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엄마 저를 낳게 해 주시고 건강하게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엄마 속 썩이지 않게 할 것이고, 말썽도 피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학원도 빠지지 않는 훌륭한 아들이 되겠습니다. 부모님이 소중하신 것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듬장누나 감사합니다. 우리들과 같이 뛰어 축구하는 모습이 그립습니다. 누나 보고싶어요. 감사합니다.

지리산 대탐사를 다녀와서...

김 영 숙(곡성 입면초등학교 6학년 이대근어머니)

10월 21일 아침일찍 일어나 7시 50분까지 곡성군민회관으로 모였다. 처음으로 우리 딸과 2박3일 동안 떨어져 자야하고 또 처음으로 우리딸과 2박 3일동안 떨어져 자야하고 또 처음으로 우리 아들과 같이하는 여행체험하는 날이다. 항상 우리 대근이에 대해 하지말아라 하는 불만이 있었고 남의 아들과 비교하는 차별도 있었다. 대화 보다는 명령이 앞섰고 대근이는 남들과 똑같이 하면 되지 하면서도 엄마로서는 그게 양이 안차 욕심을 부려라 항상 불만이 있었다. 나는 이번 2박 3일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가 내 머릿속에 떠 오르면서 아이들 키우는게 얼마나 힘든지 알 것 같았다. 다녀 온지도 몇일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좋은 추억거리로 기억에 남는다. 첫째 날에는 실상사라는 절에 갔다. 멀리서 들려오는 목탁소리가 싫지만은 않았다. 처음해 본 발우공양 안할려고 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니까 해볼수 있는 것 모든 체험을 해 보고 싶었다. "나" 보다는 우리 대근이를 위해서 그 동안 편식도 하고 음식의 소중함을 느끼지 못했던 아들을 위해서... 하루 일정이 끝나고 발표를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래도 대근이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 생각을 주장해서 발표를 하는 것 같았다. 새벽 4시부터 들려오는 목탁소리 그 목탁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와 깊은잠을 잤던 것 같았다. 눈을 뜨고 밖을 나오니 너무 상쾌하고 새벽 공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개운했고 마음 한 구석이 뻥뚫린 것처럼 시원했다. 청소와 짐 정리를 끝내고 청학동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여기 저기서 단풍이 물들고 흰희 뚫린 길과 산 2시간 30분만에 도착한 청학동 잘 생긴 훈장님과 훈사님께서 우리들을 반갑게 맞이하셨다. 처음에 공수라는 인사법을 배웠다. 그리고 절 하는것과 손잡는 자세 우리아이들은 공부보다는 더 중요한 인성교육은 먼저배워야 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배움도 잠깐이어서 배운 것만 몇글자 적어본다.

첫째로는 사람의 착한 것을 허락하고, 남이 잘한 것을 인정하자. 둘째로는 자연을 보호할수 있어야 하고, 자연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사랑하는 것은 아낌이 있어야한다. 우리자식들에 대해 사랑을 아끼고 평소에도 잘 안아주고 자주 사랑을 듬뿍주는 부모가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 사랑하고 아낌이 있는 것에는 내 자신 또한 사랑을 하자. 더불어 살고 함께 사는 것을 배웠다.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고 또 그사람은 부모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한다. 많이 보고, 많이 느낄 수있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현명한 생각과 마음씨, 좋은말, 이런것들이 크나큰 보물이다. 또 참을성을 기르자. 부지런하자. 부모님께 효도하자.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자. 싸우지말자. 착한사람이 되자. 제일 중요한 내마음에 와닿는 말은 자기를 사랑하자. 고로 남도 사랑하자. 내 자식만 자식

이라고 생각지 말고 남의 자식도 내자식처럼 대하자. 1학기때 교통 도우미를 하면서 남의 자식도 소중함을 느꼈다. 날마다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사랑하고, 이해하고, 안아주고, 기 살려주고... 대근이에 대한 욕심은 조금만 버리면 부딪치는 일도 없고, 싸울일도 인상쓸일도 없을 것이다. 너무 좋은 추억거리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내년에도 또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참가하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문화원 사무국장님을 비롯하여 문화원식구들 너무 감사합니다. 앞에서 많은 숫자를 인솔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프로그램짜느라, 또 안전을 위해서 걱정하시는 못습들이 너무 보기가 좋았습니다. 2박 3일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생태문화대탐사

이 정 희(곡성문화원)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쉬는 지리산을 한 발 한 발 내딛으면서 전남 곡성에서 출발하여 전북 실상사와 경남 청학동을 탐사한 이 경험을 바탕으로 자녀들과 학부모님들의 지리산생태문화탐사가 지속되길 바란다.

시인의 눈, 시인의 마음

[지리산 통합문화권역 탐사]에서 돌아오자 문 앞 평상위에는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민들레] 통권41호. [민들레] 책 표지에는 '스스로 서서 서로를 살리는 교육의 길을 여는'이라는 부제가 쓰여 있다. 이번 호 첫 글은 홈스쿨링으로 두 자녀를 키우고 있는 이신영님의 글이 '부모일기'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이신영님의 글 중에서 나누어 읽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편집하여 옮겨본다.

고개 위의 꽃

'붉다'는 한 단어만을 가지고
눈앞의 온갖 꽃을 말해서는 안 된다.
꽃술에는 많고 적은 차이가 있으니
꼼꼼히 하나하나 살펴보아라.

이 시는 '위인부령화'(爲人賦嶺花)라는 박제가의 한시를 국문학자인 정민님이 우리말로 풀어놓은 것이다. 정민님은 이 시를 소개하면서 시는 우리에게 사물을 보는 방법을 가르쳐주며, 시인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정민님의 설명을 좀 더 인용해보자.

"..... 꽃을 보고 그냥 붉다고 말하지 마라. 꽃술의 모양은 어떤지, 잎은 몇 개인지, 빛깔은 어떤지, 붉다면 어떤 붉은색인지, 그리고 그것이 주는 느낌은 어떤지 하나하나 따져 보고 꼼꼼히 살펴보아라. 그냥 붉은 꽃이라고만 하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꽃이 아닌 일반적인 꽃이 되고 만다. 그냥 붉은 꽃이 아니다. 그것이 내 눈의 관찰을 통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을 때, 비로소 그 꽃은 내가 만난 단 하나의 꽃이 된다."

위의 이야기를 이신영님은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

"..... 자신을 보고 그냥 '나'라고 말하지 마라. 나는 누구인지, 나는 어떤 생각을 지니고 있는지,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의 성격, 장단점, 가치관, 능력은 무엇인지 하나하나 따져 보고 꼼꼼히 살펴보아라. 그냥 '나'라고만 하면 지금의 나는 진정한 내가 아닌 껍데기뿐인 내가 되고 만다. 그냥 내가 아니다. 내가 내 스스로의 관찰을 통해 나의 참모습을 찾을 때, 비로소 나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람이 된다."

이신영님이 재구성한 위의 이야기처럼 [지리산 통합문화권역 탐사]에서 우리들은 시인이 사물을 보는 태도로 우리 자신을 살펴보았는가? 날카롭지만 따듯하고, 분별은 있지만 차별은 없는 시인의 눈으로, 시인의 마음으로 자신을 살펴보았는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할 것인가

"중요한 원칙. 아이는 소리 없이 잘못을 행한다. 그러나 교사는 모든 나쁜 짓을 사전에 알려고 하거나, 아이가 동요하고 있는 동안 즉시 바른 길을 가르쳐주려고 하고, 빛나갈 때마다 도움을 주려고 서두르는 수고를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힘든 싸움의 모든 순간에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아이들은 나쁜 짓을 해야만 한다. 아이가 격정에 저항하는 힘이 약하면 그는 싸움에서 말없이 한 번 패배할 수 있다. 아이의 도덕적인 저항력이 양심과의 싸움을 통해 훈련되고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보자.

아이들은 나쁜 짓을 해야만 한다. 어린 시절에 잘못된 길을 가조지 않고 항상 감시당하고 보호를 받는다면, 유혹에 저항하는 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 아이는 경험 부족으로 나중에 자기 스스로를 극복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수동적인 인간이 되고 만다."

위의 글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할 것인가]라는 책 중에서 코르착의 글을 옮겨 놓은 것이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자녀를 '자기 스스로를 극복하지 못하는 도덕적으로 수동적인 인간'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아이들을 사랑할 것인가?

소크라테스와 아버지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조각가였다.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어린 소크라테스에게 돌기둥을 보여 주며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냐?'고 물었다. 소크라테스는 '그냥 돌덩이로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의 아버지는 그 돌로 여인을 조각한 다음 '이 돌덩이 속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숨어 있었다.'라고 말해주었다. 그때부터 소크라테스는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보든 '그

안에 깃든 무엇'을 꿰뚫어보는 습성과 능력을 길렀다고 한다.

마법의 성

이학규 훈장님께 '삼달덕(三達德) - 지(知), 인(仁), 용(勇)' 강의를 들은 학부모님들은 노래 '마법의 성'을 통해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했다.

믿을 수 있나요 ... 수 많은 어려움 뿐이지만 ... 두 손을 모아 기도했죠 끝없는 용기와 지혜 달라고 ...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한 함께 있다면.

청학동에서 어느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집에서 본 아이와 밖에서 본 아이가 다르네요. 내 아이의 다른 모습이 보이네요.'

정말 아이들이 달라졌다. 실상사 발우공양 이후 음식물 찌꺼기는 한 숟가락이 채 못 되었다. 한 숟가락도 안 되는 음식물 찌꺼기를 통해 보석 같은 아이들의 모습을 보았다.

청학동 예절교육 이후 공수 읊례는 마지막 헤어지는 인사로까지 이어졌다. 읊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시선이 공손해지고 몸가짐이 진중해졌다.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불러준 마법의 성을 잊지 말자.

'이제 나의 손을 잡아보아요 우리의 몸이 떠오르는 것을 느끼죠 자유롭게 저 하늘을 날아가도 놀라지 말아요 우리 앞에 펼쳐진 세상이 너무나 소중한 함께 있다면.'

1997년 5월 19일자 동아일보를 통해 소설가 최인호가 성년이 된 아들에게 주었던 글은 마법의 성을 불러준 학부모님들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세상으로 나가는 아들이야. 세상은 끊임없이 너의 믿음을 저버릴 것이요, 설사 없이 너를 다치게 할 것이다. 그때 기억해다오. 집은 언제라도 돌아와 세상에 맞서 싸울 힘을 충전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자녀들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내미는 손을 꼭 잡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유인이 되길 격려한다.

지리산 생태문화체험을 다녀와서

주 수 빈(곡성 중앙초등학교 3-3)

아침 일찍 일어나서 세수, 손, 발을 씻고 군민회관에 갔다. 가보니 석곡, 입면, 고달등 많은 언니 오빠들이 와 있어서 좀 부끄럽기도 하였다. 나는 3조이고 1호차를 타고 남원 실상사에 갔다. 실상사에 가서 여자 스님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시고 점심식사를 했다. 처음으로 발우공양을 했다. 김치를 씻어서 먹고..... 처음에는 너무 더러웠다. 하지만 나의 음식이니까 먹어야 했다. 그리고 잠을 잤다. 나는 우리 엄마가 간사님이시니까 따로 방에서 잤다.

다음날....

나는 늦게 일어나서 이것 저것 해서 마당을 쓸지 못하고 실상사를 떠나고 경남 하동군 청학동에 갔다. 청학동에 도착하자 거위 4마리가 우리들을 반겨주었다. 그리고 청학동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입소식을 했다. 그리고 공수 하는 법과 큰 절 하는 법을 배웠다. 큰 절 하는 것은 처음 해봐서 많이 서툴렀는데 계속 하다보니 잘 하게 되었다. 점심시간이 되자 우리들은 급식실에 가서 점심을 먹었다. 실상사에서 먹는 밥보다 훨씬 맛있었다. 점심을 먹고 의리반에 가서 놀다가 다시 내려와서 전통놀이를 했다. 활쏘기, 긴 줄넘기, 제기차기, 투호놀이 등... 활쏘기를 처음 해서 좀 서툴렀다. 하지만 훈사님의 도움으로 조금 쓸수가 있었다. 그러나 과녁에 하나도 못 마쳤다. 그리고 긴 줄넘기에서 우리모듬은 4개 정도를 하였다. 그리고 제기차기와 투호놀이를 하고 사자소학을 하였다. 한자학원에서 하는 사자소학보다 너무 재미있었다. 그리고 인절미를 찐었다. 엄마와 함께.. 여럿이 함께 만들어서 먹으니까 더욱 맛있고 좋았다. 그리고 놀다가 취침을 하였다..

마지막날.....

죽곡 심청 예절학교에서 널뛰기와 투호놀이를 했다. 널뛰기를 처음 해봐서 좀 서툴기도하고 무서움을 많이 탔다. 널뛰기를 하려면 누가 내 손을 잡아 줘야지 탔다. 계속 타보니 손을 잡지 않고도 탈수 있어 무서움을 모르고 재미있게 탔다. 그리고 천연염색을 했다. 어린이들은 와인빛으로 했다. 한약냄새도 약간은 나서 좀 그랬지만 몸에 좋다니 열심히 했다. 물들이고 씻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고 햇빛에 말려서 각자 자기것을 가졌다. 그리고 아쉽지만 해단식을 했다. 우리 모듬도 상을 받고 상품으로 과자를 받았다. 그리고 2번의 발표회를 더해서 1, 2, 3등을 발표했는데. 나는 안돼서 조금은 서운했다. 엄마께서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면 결과가 좋아진다고 해서 기분이 조금은 나아졌다.

시간이 되어 모두 헤어졌다. 오늘 어제 그제 많은 것을 배워서 너무 신났고,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

감사합니다.



제 176612호

상 장

최 우수상

곡성 중앙초등학교
4학년 정주영

위 사람은 우리고장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목포문화원이 주최한 제2회 우리고장
문화관광기행문 공모전에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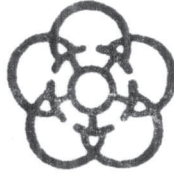
2005년 12월 9일

전라남도목포교육청교육장 오 병 인



목포문화원이 주최한 "제 2회 우리고장 문화관광기행문 공모전"에 "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 기행문을 출품하여 최우수상(곡성중앙초교 4학년 정주영), 우수상(강상희) 등 총 18명이 입상함으로 제 1기 지리산 통합문화권역 탐사단(지리산 생태문화 대탐사) 프로그램의 뜻깊은 결실 하나를 더 함으로서 참가자들과 많은 주변인들로부터 칭찬과 격려가 끊이지 않았다.

05-486



상 장

우수상

강상희

위 사람은 우리고장 문화유산의
소중함과 보전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목포문화원이 주최한 제2회 우리고장
문화관광기행문 공모전에서 두서와
같이 입상하였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05. 12. 24

목포문화원장 김석



